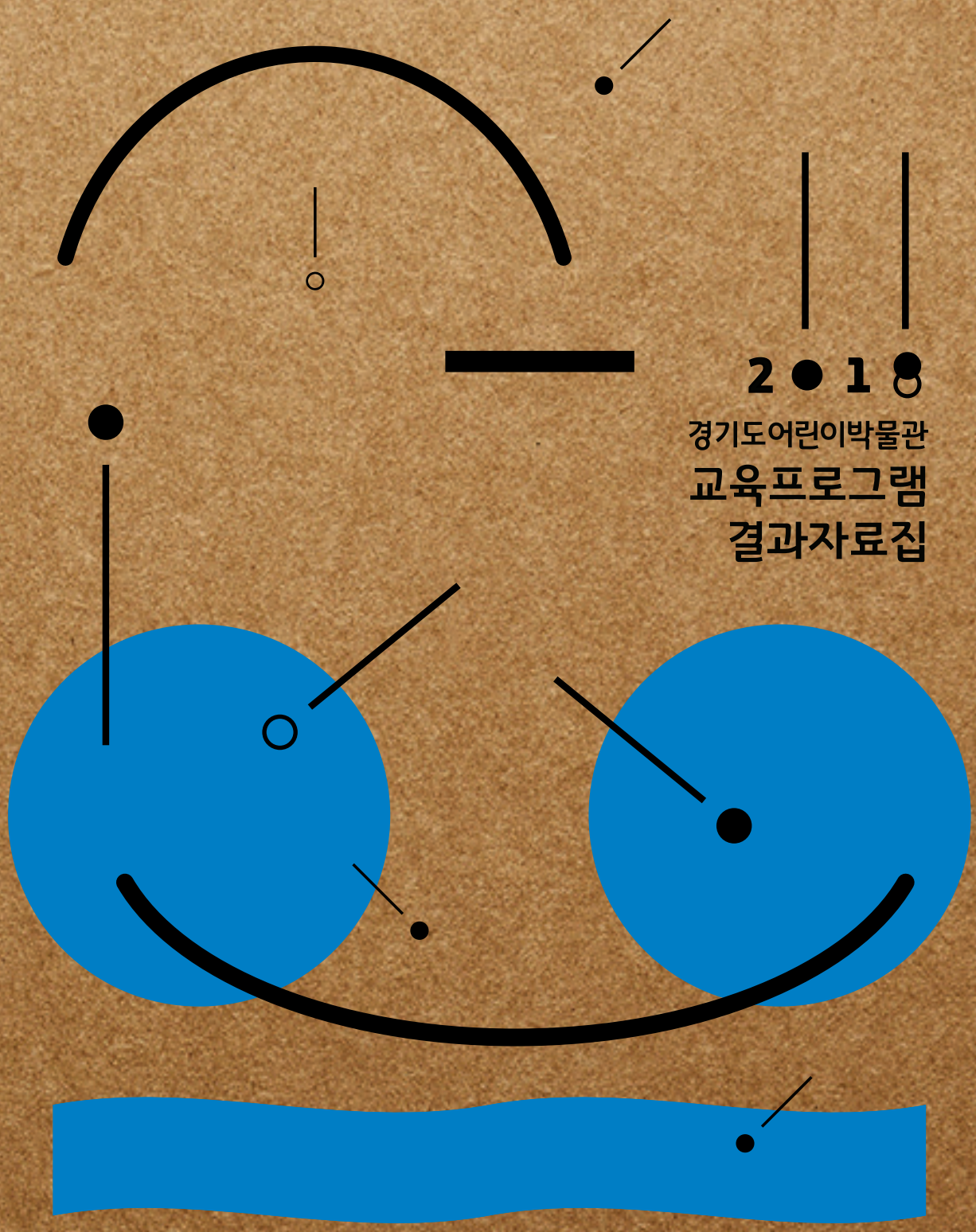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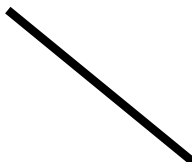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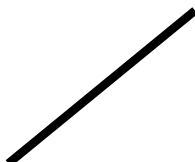
2 ● 1 8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결과자료집



2 ● 1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결과자료집



목차

I. 프롤로그

01 발간사	09
02 교육 프로그램 개요	13

II. 2018년 교육 프로그램

01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하나. 전시 연계 주말가족 프로그램	19
둘. 영유아 프로그램	31
셋. 단체 프로그램	37
02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하나. 상반기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	42
둘. 하반기 일반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43
03 에코 아트 프로그램	
하나. 개인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46
둘. 단체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47
셋.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54
넷. 예술인복지재단 연계 프로그램	55

II. 2018년 교육 프로그램

04 특별 교육 프로그램

하나. 어린이날 행사	59
둘. 방학 프로그램	62
셋. 명절 프로그램	75
넷. 문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78

05 학령기 준비 프로그램

· 초등학교에 간다면?	81
--------------	----

06 외부 자원 프로그램

· 행복수업	84
--------	----

III. 교육 간담회

89

IV. 에필로그

101

1. 프롤로그

01

발간사

02

교육 프로그램 개요

01 발간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신나는 배움터’입니다. 9개의 상설전시장과 1개의 기획전시장 그리고 3개의 틈새전시장이 있습니다. 전시장 모두를 합하면 1,000평 정도 됩니다. 그곳에는 어린이 발달단계를 고려한 주제 체험전시가 여러가지로 펼쳐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공작체험물을 가지고 놀며 몸으로 배웁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평일 오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평균 7~800명이 찾아 옵니다. 많은 날은 1,000명 가까이 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초등학교 단체 관람이 많아졌습니다. 2017년 상설전시장 새단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업으로 꾸민, 멸종위기 동식물을 테마로 한 “칼라풀 정글”이 가져온 긍정적 영향인 것 같습니다.

2018년에도 상설전시장 하나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10월 24일 개장한 ‘바람의 나라’가 그것입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삼라만상의 바탕을 이루는 4원소 가운데 ‘물(水)’에 이어 ‘바람’(風)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은 ‘흙’(地)과 ‘불(火)’을 테마로 한 전시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상설전시장이 새롭게 바뀌니 어린이박물관 뮤지엄 교육의 경향도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새싹액자”, “함께 지켜요! 경기도의 동식물친구들”,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용뿔산 히어로”(Hero), “지구도 우리도 건강하게!” 등등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며 야생 동식물에도 관심을 주고 우리 모두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삶을 희구하는 바람이 교육 프로그램에도 스며들어 배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현재 공진화 중에 있습니다. 뮤지엄 교육도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린이들이 자라 꽃피우게 될 미래의 생태문명과 세계를 향한 활생(活生)문화 발신처가 이 땅에서 비롯되기를 바라며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오늘도 꿈을 심고 꿈을 나눕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애정을 갖고 마음을 실어준 어린이박물관 안팎의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018년 ‘신나는 배움터’ 뮤지엄 교육을 풍성하게 일구는데 힘써주신 현장의 교육 강사, 운영 스텝,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결실을 거두어 갈무리하여 교사, 예술가, 학부모, 어린이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준 유나리, 박혜린, 김해송, 권혜진 에듀케이터와 전지영 학예팀장에게 감사와 격려 박수 보냅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양원모

날마다 새로운 어린이들 곁에서 日新又日新!

어려웠던 시대, 어린이를 나라의 미래로 여겼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날 선언문(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1923년)」에는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 받아 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1957)」에는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한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라는 글이 있지요. 특별히,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를 ‘날마다 새로운 존재’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어린이가 주인공인 우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올 한해 어떤 변화를 모색하며 어린이들의 새로움에 부응하고자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핏 보면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선을 위한 잔잔한 흔적들이 보일텐데요,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새로 이동 조성된 교육실입니다. 기존에 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을 전면 개편하여 총 3개의 교육실을 가진 교육동을 조성하였지요. 기본 교육실 외에도 아담한 소교육실, 지역민들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사랑방을 만들어 지역의 생활문화교육 공간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좋은 교육 시설, 즐겁고 안전하게 놀 공간... .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나 그래도 어린이 친구들을 생각하며 한걸음 변화를 단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어린이 박물관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친구들에게 예술로 배우고 놀이로 익히는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사업’에 선정되어 야심 차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는데요, 소위 ‘깁 세대’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초등 저학년 친구들에게 여전히 쉽터, 즐거운 학습 놀이터로 존재하는 박물관이고 싶었습

니다.

세 번째 시도한 것은 심화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입니다. 여러 명이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더 깊이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고 즐기기를 원하는 친구들에게 기억에 남을 교육 참여 경험치를 주고 싶어 없는 예산을 모아모아 심화 과정을 넓혀보았지요.

그 밖에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확장과 콜로키움 개최 등 다방면의 시도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 한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지점은 바로 학예연구사들이 교육 기획을 위한 고민과 연구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질적, 내용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교육 경험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의 의지와 목마름을 반영한 결과였는데요. 비록 운영횟수가 줄어들어 자칫 게을러진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지라도, 스스로 자문자답해가며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공들여 기획해가는 실무자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교육의 내용은 분명 예년보다 풍성해졌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는 응당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몫으로 돌아갔겠지요.

양적인 것을 많이 포기한다고 했는데도 한해를 돌아보니 약 60여종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회성 진행으로 그치기에는 아쉬운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해서, 밖에서도 이러한 교육 연구 자료들이 선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리소스센터에 교육기획안, 실행계획안을 꾸준히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모아 한권의 자료집으로 발행합니다.

모쪼록 본 결과자료집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선인들의 마음을 담아, 날마다 새로운 존재인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좋은 교육을 받은’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결과 속 과정은 밖으로 쉽게 나타나지않는 법이라 눈에 띄는 변화는 미비했을지라도, 조금 더 발전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만나고자 했던 노력만큼은 게으르지 않았던 한해였습니다. 그렇게 올 한해도 어린이들을 위해 최선을해주신 학예팀 교육 담당 학예연구사, 연구원분들 그리고 주강사, 보조강사 선생님들의 뜨겁고 진실한 열정에 감사와 지지를 전합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전지영

02 교육 프로그램 개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여섯 가지 틀로 구성된다. 유아부터 초등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예술작가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건축, 사진, 음악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예술작품을 만드는 ‘에코 아트 프로그램’, 어린이날, 방학 기간 등 특별한 시기에 시의성 있는 주제로 운영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교생활을 경험해보는 ‘학령기 준비 프로그램’,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의 측면에서는 참여자의 연령과 유형에, 내용의 측면에서는 박물관 전시와의 연계성과 예술가와의 협업, 기획 과정에서 어린이와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는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연령(유아부터 초등까지)과 유형(개인, 단체, 가족)을 고려한 영유아 프로그램, 주말가족 프로그램, 영아 단체 프로그램, 초등 단체 프로그램이 전시장의 주요 콘텐츠를 심화·응용하여 세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정체성이 담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박물관 전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으로, 특정한 전문 분야의 예술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및 운영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건축, 2018년

에는 사운드 아트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은 박물관 전시장의 주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예술·과학·기술·공학 등을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융·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기획 과정에서 ‘어린이와의 소통’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개관 준비 단계부터 운영해온 어린이자문단이 그 소통의 중심에 있다. 박물관의 교육뿐만 아니라, 전시 기획에서도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들을 어린이들과 함께 시도해보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18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운영 내용	참가비
①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전시 연계 주말가족 프로그램	04.01.~11.25. 매주 토·일요일	박물관의 전시장과 연계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시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의미를 발견하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5,000원
	영유아 프로그램	04.01.~12.14. 매주 금요일	아기둥지(영아실) 속 작품 또는 체험물과 연계한 감각, 신체, 표현 활동이 포함된 전인적 프로그램	2,000원
	영아 단체 동화 구연 프로그램	01.02.~12.31. 화~금요일 (방학기간 제외)	영아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동화구연가의 재능기부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무료
	초등 단체 프로그램	05.11.~10.18. 화~금요일 (방학기간 제외)	미디어 전시 ‘컬러풀 정글’과 연계하여 경기도의 멸종위기 동식물의 멸종위기 원인, 보호방법을 알아보는 프로그램	무료

② 특별 교육 프로그램	명절 프로그램	01.02.~12.31. 기간 중 설, 추석 연휴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통 명절 풍습을 알아보고, 재활용품 으로 복주머니와 보름달 조명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무료
	어린이날 행사	05.05.~05.07.	경기 천년의 해를 맞이하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어린이 권리신장을 담은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융합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무료 ~ 1,000원
	방학 프로그램	01.02.~01.14. 07.26.~08.17.	관람객이 집중되는 여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시의성을 지닌 주제 하에 이루어지는 예술·과학·기술 등 다양 한 분야를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	무료 ~ 5,000원
	문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05.30. 08.14.	문화예술 향유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 소외계층을 박물관으로 초청하거 나 직접 찾아가서 박물관의 교육 프로 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무료
③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05.26.~10.27. (방학기간 제외)	박물관의 신규 전시인 '바람의 나라' 와 연계하여 사운드 아트 분야 전문가 와 함께 바람의 다양한 소리를 발견 하고 조합해보는 프로그램	상반기 10,000 원 · 하반기 5,000원
④ 에코 아트 프로그램	개인 대상 프로그램	01.02.~12.31.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형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는 업사이클 프로그램	무료
	단체 대상 프로그램	01.02.~12.31.	누리과정 교육 과정과 연계한 주제로 재활용품을 활용한 조형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는 업사이클 프로그램	무료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01.02.~12.31.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종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창작 작품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무료
	예술인파견 지원사업 프로그램	01.02.~10.31.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파견한 예술작가 와 함께 박물관의 에코 아틀리에 전시 공간을 활용하여 기획한 주제로 운영 되는 프로그램	무료

⑤ 부모 교육 프로그램	행복수업	07.15.~08.26.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한 부모 가정 보호자와 자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대형 토크 콘서트 및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	무료
⑥ 학령기 준비 프로그램	초등학교에 간다면?	11.10.~12.25.	6, 7세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생활을 미리 체험해보는 학령기 준비 프로그램	무료

Ⅱ. 2018년 교육 프로그램

01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하나. 전시 연계 주말가족 프로그램

둘. 영유아 프로그램

셋. 단체 프로그램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전시 콘텐츠와 연계하여 어린이의 발달 단계와 참여자의 유형(개인 또는 단체 관람객)을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박물관의 주요 전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말가족 프로그램, 영유아 프로그램, 단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하나. 전시 연계 주말가족 프로그램

주말가족 프로그램은 6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박물관의 상설 전시실과 연계해 전시실의 주제를 심화 학습할 수 있는 STEAM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전시물을 새롭게 해석하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	연계 전시실	주제	프로그램 명
4월	작은 생태전 · 자연놀이터	협동하는 곤충과 식물	나비야, 꿀벌아 이리 와! 맛있는 식빵 꽃 만들기 개미들의 이야기책 만들기
5~6월	우리 몸은 어떻게?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내 몸의 특징	아? 아! 아~ 목소리 모양이 보이네?! 우리 가족 지문을 액자에 담아보자!
9월	동화 속 보물찾기	경기도의 옛 이야기	둥둥!! 달을 닮은 북에 소원을 담아보자 언 발을 녹이는 별과 다리 이야기
10~11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세계의 전통놀이	맞는 카드는 단 하나! - 동시 가투놀이 한 판 돌 두고 돌 갖기?! - 인도네시아 전통 보드게임 종꼴락

4월

나비아, 꿀벌아 이리 와! 맛있는 식빵 꽃 만들기

기간	04.07. - 04.28.	일시	매주 토요일 13:30, 15:3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재료	식빵, 잼, 건조과일칩, 스틱형 과자, 슈가파우더, 휘핑크림, 빵칼, 머핀컵		

학습 목표	- 봄을 맞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과 곤충(나비, 벌)이 공생관계를 맺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협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곤충을 통한 수분 방법과 꽃이 곤충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을 배움으로써 주변과의 관계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 -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식빵, 잼 등을 이용하여 나만의 꽃을 만들 수 있다. -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통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으로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	---

개요	상설전시장 '자연놀이터' 및 박물관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와 곤충을 유인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알아본 후,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먹을 수 있는 꽃을 만들어 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꽃'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말해보고 마인드맵 완성하기
	전개	- 식물이 곤충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수단을 이해하기 - 꽃잎의 색, 무늬, 모양, 향기, 냄새, 꿀, 꽃가루 - 페퍼민트 실물을 통해 식물의 향기를 맡아보기 - 식물의 일생과 꽃가루받이 후 열매를 맺는 과정을 이해하기 - 가족과 협동하여 우리 집의 맛있는 식빵 꽃 만들기
	마무리	- 가족 발표 - 인사 및 마무리



4월

개미들의 이야기 책 만들기

기간	04.01. - 04.29.	일시	매주 일요일 13:30, 15:3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재료	스크랩북, 크레용, 색연필, 매직, 마스킹테이프, 잡지, 가위, 풀, 붓펜		
학습 목표	1.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인 개미가 서로 협력하여 사회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통해 협동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다. 2. 개미가 서로 협력하고 다른 곤충과 도움을 주고받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주변과의 관계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 3. 가족과 함께 게임을 하고 개미의 역할분담을 생각하며 이야기책을 만듦으로써 협동을 몸으로 체험하고 일을 나눠서 한다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체험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개요	상설전시장 ‘자연놀이터’ 및 박물관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와 곤충을 유인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알아본 후,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먹을 수 있는 꽃을 만들어 본다.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협동의 사례를 알아보고 개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개 1. 개미의 역할분담에 대해 이야기하기 (여왕개미, 병정개미, 일개미) 2. 가족과 협동하여 개미들의 이야기책 만들기 마무리 1. 가족 발표 2. 인사 및 마무리		



5월~6월

아?아!아~ 목소리 모양이 보이네?!

기간	05.05. - 06.30.	일시	매주 토요일 13:30, 15:3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재료	소리를 눈으로 보는 장치, 종이 액자, 나무집게, 마끈, 검정 도화지		

학습 목표	1. 목소리를 통해 소리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신체(목)와 자연현상(소리)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 2. 가족의 목소리를 그림으로 그림으로써 자신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체험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	---

개요	상설전시장 ‘우리 몸은 어떻게?’와 연계하여 소리의 원리에 대해 알아본 후, 목소리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간이 오실로스코프를 만들어 본다. 그 후 가족의 목소리를 관찰한 결과를 그림으로 그리고 비교해 본 뒤 그림으로 종이 액자를 만든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부모님의 목소리를 맞춰보기 - 눈을 감고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손을 들어요
	전개	1. 소리의 원리를 알아보기 - 부모님과 이야기하며 서로의 성대를 만져보기 - 소리는 떨림이다 2. 떨림에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기 - 같은 곡을 멜로디언과 오카리나로 연주한 소리 비교하기 3. 간이 오실로스코프를 만들어 목소리의 형태를 관찰하고 종이 액자에 담기
	마무리	1. 가족 발표 2. 인사 및 마무리



5월~6월

우리 가족 지문을 액자에 담아보자!

기간	05.06. - 06.24.	일시	매주 일요일 13:30, 15:3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재료	샌드위치 액자, 수채화 물감, 팔레트		
학습 목표	1. 지문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배우며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문의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신체와 신체적 특징의 활용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다. 3. 체험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개요	상설전시장 ‘우리 몸은 어떻게?’와 연계하여 우리 몸의 고유한 특징인 지문에 대해 알아본 후, 가족 모두의 지문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액자를 꾸며 지문 액자를 만들어 본다.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지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기	
	전개	1. 지문의 특징과 역할 알아보기 2. 지문의 여러 가지 활용방안 알아보기 - 범죄 수사 증거, 지문등사전등록제, 지문아트 - 범인을 찾아보는 퀴즈: 남겨진 지문을 바탕으로 토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주스를 마신 범인 찾기	
	마무리	1. 가족 발표 2. 인사 및 마무리	



9월

등등!! 달을 닮은 북에 소원을 담아보자

기간	09.01. - 09.29.	일시	매주 토요일 13:30, 15:3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재료	빈 캔, 풍선, 접착펠트, 마스킹테이프, 원형스티커, 나무막대		
학습 목표	1. 2018년이 경기 정명 천년의 해라는 사실과 지명의 유래를 배움으로써 경기도에 속한 다양한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와 역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2. 과거시험, 정월 대보름 등의 소재가 담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시풍습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3. 체험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개요	동화 속 보물찾기 전시장과 연계하여 경기도 군포시의 지역 설화(감투봉 아가씨)를 알아본다. 이어 과거시험, 정월 대보름 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빈 깡통과 풍선을 활용하여 이야기에 나왔던 소재인 북을 만들어 본다.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경기’도 명칭의 유래 및 경기도 군포시의 ‘감투봉 아가씨’ 이야기 소개	
	전개	1. ‘감투봉 아가씨’ 이야기 듣기 - 간단한 손 인형극으로 진행 2. ‘감투봉 아가씨’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생활상 알아보기 - 아가씨와 청년이 달님에게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정월 대보름 - 아가씨는 왜 청년이 과거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도했을까요? : 과거시험 3. 빈 깡통과 풍선을 활용하여 작은 북을 만들고 소원을 담아보기	
	마무리	1. 가족 발표 2. 인사 및 마무리	



9월

언 발을 녹이는 별과 다리 이야기

기간	09.02. - 09.30.	일시	매주 일요일 13:30, 15:3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재료	우드락, 접착펠트, 신주뿔, 자수용 실 2종, 목공용 풀, 페인트 마카		

학습 목표	1. 2018년이 경기 정명 천년의 해라는 것과 지명의 유래를 배움으로써 각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와 역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2. 효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 사랑과 배려의 중요함을 알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 3. 체험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	--

개요	동화 속 보물찾기 전시장과 연계하여 복두칠성이 된 일곱 형제 이야기와 경기도 이천시의 지역 설화(안장사와 석교)를 알아본다. 이어 가족 간의 배려와 사랑을 실천할 방법을 이야기 한 뒤 우리 가족만의 별자리 모양을 스트링 아트로 만들어 가족애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내 이름의 뜻과 유래를 알아보고 발표하기 - 내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 나는 어떻게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나요?
	전개	1. ‘복두칠성이 된 일곱 형제’, 경기도 이천시의 ‘안장사와 석교’ 이야기 듣기 2.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 일곱 형제와 안 장사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일곱 형제와 안 장사처럼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스트링아트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가족 별자리 만들기
	마무리	1. 가족 발표 2. 인사 및 마무리



10~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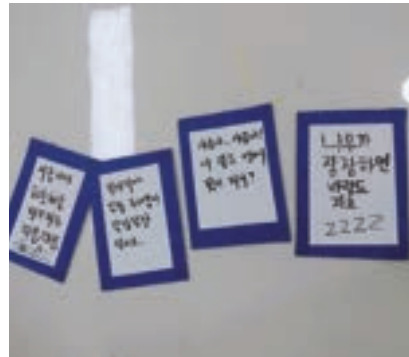
맞는 카드는 단 하나! - 동시 가투놀이 한 판

기간	10.06. - 11.24.	일시	매주 토요일 13:30, 15:3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재료	두꺼운 도화지, 마스크테이프, 홀로그램 색종이, 붓펜, 색연필		

학습 목표	1.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해당 문화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2. 두 나라의 옛 시를 활용한 전통놀이를 소개하고 동시와 동요를 활용해 놀이 도구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문학에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체험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	--

개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전시장과 연계하여 일본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뒤 일본의 전통 놀이 ‘경기 카루타(백인일수 카루타)’와 우리나라의 ‘가투놀이’를 소개 한다. 이후 우리나라의 동시와 동요를 활용해 가투놀이 카드를 만들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게임 규칙에 따라 가족과 함께 게임을 즐겨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이야기하기 - 애니메이션 캐릭터 카드를 예시로 들며 백인일수 소개하기
	전개 1. 백인일수와 백인일수 카루타에 대해 알아보기 2. 한국의 가투놀이 알아보기 3. 동시와 동요를 활용해 가투놀이 카드를 만들고 게임하기 - 겨울(윤동주), 나무(윤동주), 사슴뿔(강소천), 여름 냇가(이태선, 박재훈)
	마무리 1. 가족 발표 2. 인사 및 마무리



10~11월

돌 두고 돌 갖기?! - 인도네시아 전통 보드게임 쯡끌락

기간	10.07. - 11.25.	일시	매주 일요일 13:30, 15:3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재료	마분지, 폼 양면테이프, 마스킹테이프 3종, 구슬, 네임펜, 1회용 소스통		
학습 목표	1.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해당 문화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2. 전통놀이 도구를 직접 만들고 가족과 함께 놀이해봄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3. 체험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개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전시장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뒤 인도네시아의 전통 놀이 ‘쯡끌락’을 소개한다. 그 후 1회용 소스통과 마분지를 활용해 직접 쯡끌락 보드를 만들고 가족과 함께 게임을 즐겨본다.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동·식물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대해 알아보기	
	전개	1. 인도네시아의 위치와 특징 알아보기 - OX퀴즈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이다? - 인도네시아는 1년 내내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곳이다? -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2. 인도네시아의 전통놀이 쯡끌락(Congklak) 알아보기 3. 1회용 소스통과 마분지를 활용하여 쯡끌락 보드 만들고 게임하기	
	마무리	1. 가족 발표 2. 인사 및 마무리	



주말가족 프로그램 어린이 후기 !



나비야, 꿀벌아 이리 와!
맛있는 식빵 꽃 만들기

"벌이랑 나비가 꽃을 찾아오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식빵꽃을 만들 때, 딸기 칩을
밀대로 부수고 꽃 위에 뿌리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집에서도 해보고 싶고
친구들이 왔을 때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개미들의
이야기책 만들기

"개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즐거웠어요.
특히 종이나 골판지를 가위로 오리고
붙이는 작업이 재밌었어요. 크레파스
색깔이 마음대로 잘 안 나왔어요.
연하거나 쉽게 번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예쁘게 만들어져서 뿌듯했어요."



아? 아! 아~
목소리 모양이 보이네?!

"레이저 빛이 반사되어서 목소리
모양이 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학교 과학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배운 적
이 없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컵에 풍선을
팽팽하게 씌우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잡고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 지문을
액자에 담아보자!

"제가 소풍가는 거를 그렸어요. 가족이랑
초원에 가서 고기를 먹고 싶어요.
지문으로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손가락 도장을 찍어서
액자를 만드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둥둥!! 작은북에
소원을 담아보자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달라고 적었어요."



언 발을 녹이는 별과
다리 이야기

"수업 내용이 어려웠던 건
없어요! 사랑해요, 우리 가족"



맞는 카드는 단 하나! -
동시 가투놀이 한 판

"어려운거 없었고
카드놀이가 더 재미있었어요!"



돌 두고 돌 갖기?! -
인도네시아 전통 보드게임
쥬쥬락

"인도네시아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둘. 영유아 프로그램

영유아 프로그램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아기둥지(영아실) 콘텐츠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24~42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아기둥지의 예술작가의 작품과 환경을 감상하고, 작품 속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신체·감각 활동 및 표현 활동을 경험하는 전인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하고 있다.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에게는 어린 시절 참여한 박물관 프로그램이 행복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에게는 영유아와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월	연계 주제	프로그램 명
4월	동화책 ‘배고픈 애벌레’, 저자: 에릭 칼	나비처럼 훨훨
5월	동화책 ‘냠냠냠 쪽쪽’, 저자: 문승연	요리해 봐요
6~7월	동화책 ‘숲 속에서 쿵쿨’, 저자: 베뜨르 호라체크	숲 속 집을 지어 봐요
9~10월	동화책 ‘가을 숲 도토리 소리’, 글: 우종영, 그림: 하영	다람쥐의 도토리 찾기
11~12월	인디언 손 인형극	꼬마 인디언의 모험

4월

나비처럼 훨훨

기간	04.06. - 04.27.	일시	매주 금요일 13:30~14:10
대상	24~42개월 미만의 영유아 7가족	장소	1층 아기동지(영아실)
재료	나비 그림책, 나비 날개, 나비 더듬이 머리띠, 꽃방석, 영유아 과자·과일(포도, 영유아용 과자 등) 지퍼 팩, 나무집게, 모루, 싸인펜		
학습 목표	1. 나비의 성장과정을 알아본 후, 나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배워본다. (나비의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통해 나의 성장에 대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자연탐구, 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의사소통, 예술경험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여 복합적인 감각 발달에 도움을 준다.		
개요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를 익힐 수 있도록 울동, 비눗방울 놀이 등을 이용하여 활동을 한 후, 수 업을 시작한다. 나비의 성장과정 동화책을 읽어본 후, 모형을 통해 나비를 관찰하고 나비에 대 해 알아본다. 애벌레, 나비로 변신한다. '나비아' 노래에 맞춰 나비처럼 움직여보는 신체 놀이 를 한다. 나비로 변신한 다른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나비처럼 춤추는 활동 이후 간식을 이용 하여 나비를 만들어본 뒤 활동을 마무리한다.		
활동 내용	도입	1. 아이들과 인사 나누기- 음악에 맞춰 울동, 비눗방울 놀이 등 아이들이 처음 보는 선생님, 친구들을 익힐 수 있는 시간 갖기 2. '배고픈 애벌레'라는 나비의 성장과정이 담긴 동화책을 다 같이 보고 나비에 대해 탐구하기(자연탐구)	
	전개	1. '나비아' 노래를 들으며 나비처럼 날개 달고 날아보기 - 애벌레처럼 기어보기 (네발로 기어보기, 배로 기어보기) - 나뭇잎에 사는 애벌레를 만나보기 - 애벌레 친구와 터널 통과하기 - 나비로 변신하고 나비가 된 친구들과 인사하기 - 날개를 약하게, 세게 또는 천천히, 빠르게 움직여보기 - 여러 가지 선 따라 움직여보기 - 가까이 또는 멀리 날아가 보기 - 꽃을 찾아보고 앉아보기 - 친구들과 다 같이 나비처럼 춤추기 2. 간식으로 나비 만들기	
	마무리	1. 인사 후 마무리	



5월 요리해 봐요

기간	05.04. - 05.25.	일시	매주 금요일 13:30~14:10
대상	24~42개월 미만의 영유아 7가족	장소	1층 아기둥지(영아실)
재료	여러 가지 과일(바나나, 오렌지 등 4가지의 제철 과일), 과일 장바구니, 동화책, 앞치마, 도마, 플라스틱 칼, 요플레, 꿀, 볼 용기, 수박 모양 공, 끈, 과일 모형, 유아용 시리얼, 믹서기, 종이 그릇		
학습 목표	1. 과일을 탐색해봄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요리를 직접 해보는 활동을 통해 과일에 관심을 갖는다. 2. 자연탐구, 건강, 사회관계, 의사소통, 예술경험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여 복합적인 감각 발달에 도움을 준다.		
개요	동화책 ‘남남남 쪽쪽쪽’을 읽고 과일에 대해 알아본다. (과일의 종류와 좋아하는 과일을 이야기 해보고 먹는 흉내 내며 의태어, 의성어 학습)실제 과일을 장보는 활동 놀이로 시작해 탐색해 본다. 과일을 직접 만져보고, 잘라보고, 먹어본다. 탐색의 과정이 끝나면 과일을 갈아서 주스를 만들고 맛보고, 요플레에 직접 자른 여러 가지 과일을 넣고 섞어 샐러드를 만들어 맛본다.		
활동 내용	도입	1. 아이들과 인사 나누기 -음악 들으며 율동, 비눗방울 놀이 등 아이들이 처음 보는 선생님, 친구들을 익힐 수 있는 시간 갖기 2. ‘남남남 쪽쪽쪽’ 동화책을 읽고 과일에 대해 알아보기	
	전개	1. 재료를 탐색하기 전 요리 재료를 장 보는 활동 해보기 2. 과일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과일 탐색하기 3.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 잘라보기, 먹어보기 (오감 체험 활동) 4. 직접 자른 과일 믹서기에 갈아 보기 5. 자르고 남은 과일 요플레와 섞어 보기 6. 스스로 만든 과일 샐러드 부모님과 함께 맛보기	
	마무리	1. 인사 후 마무리	



6~7월

숲 속 집을 지어 봐요

기간	06.01. - 07.13.	일시	매주 금요일 13:30~14:10
대상	24~42개월 미만의 영유아 7가족	장소	1층 아기동지(영아실)
재료	습자기, 백업 망치, 여러 가지 모양 퍼즐, 부직포 동물 옷, 동물 인형, 짹짹 깃털, 동화책(숲 속에서 쿨쿨), 동물 귀 모양 머리띠		
학습 목표	1. 숲 속에 사는 동물들의 집을 알아보고 아기동지와 연계된 콘텐츠를 통해 동물들이 잠자는 집과 내가 사는 집을 이야기해 보며 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도움을 준다. 2. 집을 지어봄으로서 소재 경험을 통해 자연 탐구, 협동 작업을 통한 사회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각적 예술 경험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여 복합적인 감각 발달에 도움을 준다		
개요	동화책 '숲 속에서 쿨쿨'을 읽고 숲 속에 집을 짓고 사는 동물들을 알아본다. 선생님, 친구들과 숲 속 탐험을 해 본다. 습자지를 이용해 재료 탐색 과정과 감각 발달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 후, 동물로 변신한다. 아기동지 곳곳에 직접 집을 지을 곳을 찾아보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본다. 내가 만든 공간에서 잠을 자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한다.		
활동 내용	도입 1. 아이들과 인사 나누기 - 음악에 맞춰 율동, 비눗방울 놀이 등 선생님, 친구들을 익힐 수 있는 시간 갖기 2. '숲 속에서 쿨쿨' 동화책 보고 동물들이 사는 집에 대해 알아보기		
	전개	1. 멋진 동물로 변신하기 (호랑이, 토끼, 생쥐 등) 2. 아기동지(영아실)를 돌며 숲 속 탐험하기 3. 여러 가지 색 습자기 탐색 - 구겨서 소리 들어보기 - 찢고, 밟아보기 - 날려보기 - 덮어 보기 - 상자에 있는 습자기 뽑아보기 4. 숲 속에 사는 동물과 같이 집 지어보기 - 집을 지을 공간 찾아보기 - 도구를 통한 자기 공간 만들기 - 망치를 이용한 모양 퍼즐 맞추기 - 깃털과 클레이를 활용한 집 꾸며 보기 - 습자지를 활용한 이불과 잠자리 만들기 - 다른 친구와 내 공간 공유해보기 5. 내가 지은 집에서 잠 자보기	
	마무리	1. 인사 후 마무리	



9~10월

다람쥐 도토리 찾기

기간	09.07. - 10.26.	일시	매주 금요일 14:00~14:40
대상	24~42개월 미만의 영유아 7가족	장소	1층 아기둥지(영어실)
재료	동화책(가을 숲 도토리 소리), 다람쥐 얼굴 모양 머리띠·꼬리, 도토리(딸랑이, 뽕뽕이)인형, 다람쥐 집 짐볼, 낙엽 모양 부직포, 백엽 나무, 색깔 성냥 나무, 단풍잎·은행잎 모양 펠트		
학습 목표	1. 동화책을 읽고, 동화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상상하는 경험을 갖는다. 2. 다람쥐 집 짐볼을 이용해 대근육 신체활동을 한다. 3. 다람쥐 집에 낙엽잎을 붙이면서 가을의 자연 환경 변화를 안다. 4.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만들어 예술 활동으로 가을을 표현한다.		
개요	동화책 ‘가을 숲 도토리 소리’를 읽고 가을 숲의 모습과 숲에서 만나는 다람쥐에 대해 알아본다. 선생님, 친구들과 다람쥐 옷을 입고 다람쥐가 되어 다람쥐 집 짐볼을 이용해 대근육 신체 활동을 한다. 다람쥐 집에 낙엽 잎과 도토리 부직포를 붙이면서 가을의 자연 환경 변화를 안다. 백엽 나무에 색깔 성냥 나뭇가지를 꽂아 나만의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만들어 미술 창의활동으로 마무리 한다.		
활동 내용	도입 1. 아이들과 인사 나누기, 아기둥지 환경 탐색 - 음악에 맞춰 율동, 비눗방울 놀이 등을 통해 선생님, 친구들을 익히고 낯선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시간 갖기 2. ‘가을 숲 도토리 소리’ 동화책 보고 가을 숲의 모습과 숲에서 만나는 다람쥐에 대해 상상하기 전개 1. 다람쥐 얼굴 모양 머리띠·꼬리를 달고 다람쥐가 되어보기 2. 다람쥐 집 짐볼을 이용해 대근육 신체활동하기 - 짐볼을 엄마와 함께 밀기, 굴리기 - 발로 차기 - 엄마의 도움을 받아 올라타기 - 짐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기 3. 다람쥐 집 짐볼에 낙엽 잎과 도토리 붙이기, 넣기 - 땅에 떨어진 낙엽 잎 속 도토리 부직포를 찾아 짐볼에 붙이고 도토리 인형을 아기둥지 나무에서 따 짐볼에 숨기기 (다람쥐의 특성을 놀이 활동으로 탐구하기) 4. 다람쥐 집 짐볼 속에 들어가 잠 자보기 5. 백엽 나무에 색깔 성냥 나뭇가지 꽂고 은행잎, 단풍잎 매달기 나만의 은행나무, 단풍나무 만들기 마무리 1. 인사 후 마무리		



11~12월

꼬마 인디언의 모험

기간	11.02. - 12.14.	일시	매주 금요일 14:00~14:40
대상	24~42개월 미만의 영유아 7가족	장소	1층 아기둥지(영아실)
재료	인디언 손 인형, 인디언 복장, 인디언 음악, 통나무 모양 교구, 평균대, 그물망, 창살 모양 교구, 펠트 물고기, 북, 모닥불 모양 교구, 인디언 텐트(티피), 스텐실 붓, 스텐실 스펀지, 스텐실 물감, 무지 에코백, 장식 깃털		
학습 목표	1. 인디언 손 인형으로 인디언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 인디언 음악에 맞춰 북을 두드리며 리듬을 즐긴다. 3. 통나무 모양 교구를 이용해 배를 만들기, 사냥 활동, 인디언 텐트(티피)에서 휴식 갖기 등의 활동을 통해 인디언의 생활을 알아본다. 4. 인디언 문양을 알아보고,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나만의 인디언 가방을 꾸며본다. 5. 사라져가는 인디언 민족의 자연친화적인 생활과 문화를 놀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 할 수 있다.		
개요	인디언 손 인형을 이용하여 인디언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들과 인디언에 대해 이야기 나뉘는다. 선생님, 친구들과 인디언 복장을 입고 인디언이 되어 음악에 맞춰 북을 두드리며 리듬을 익힌다. 평균대에서 중심을 잡고 외나무다리 건너기, 기어서 그물망 지나기, 무게가 있는 통나무 모양 교구를 자신의 힘으로 들어 올려 배 만들기 등 대근육 신체 활동을 한다. 배 위에서 창살 모양 교구를 이용해 펠트 물고기를 잡아 인디언 텐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인디언의 생활을 재현한다. 이를 통해 인디언의 자연친화적인 생활과 문화를 놀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인디언 문양을 알아보고 붓, 스펀지 같은 다양한 미술재료를 사용한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나만의 인디언 가방을 꾸며보며 미술 창의 활동으로 마무리한다.		
활동 내용	도입 1. 아이들과 음악을 들으며 인사 나누기, 아기둥지 환경 탐색하기 - 인디언 음악을 들으며 울동, 비눗방울 놀이 등 선생님, 친구들을 익히고 낯선 환경과 교육 내용에 적응 할 수 있는 시간 갖기 2. 인디언 손 인형극을 보며 인디언에 대해 알아보기 전개 1. 인디언 복장을 입고 인디언이 되어 인디언 음악에 맞춰 북 두드리며 리듬 익히기 2. 대근육 신체활동을 하면서 인디언 모험을 떠난다. - 외나무다리 건너기(평균대에서 중심 잡기) - 새가 앉았던 덩굴 지나기(깃털 그물망 기어서 지나기) - 속이 빈 통나무 넘기(신체 놀이 교구 기어 오르기) - 통나무를 엮어 배 만들기(무게감이 있는 교구 옮겨 붙이기) 3. 통나무 배 위에서 창살로 물고기 사냥하여 먹기 4. 인디언 텐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휴식 취하기 5. 인디언 문양으로 나만의 인디언 가방 꾸미기 마무리 1. 인사 후 마무리		



셋. 단체 프로그램

영아 단체 동화 구연 프로그램 <이야기 속으로 풍덩!>

영아 단체 동화 구연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 동화 구연을 다년 간 진행해온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는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시실 체험 코스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방학기간을 제외한 평일 개관일(화~금)에 운영된다.

영아 단체 대상 전시실 체험 코스

연령 및 인원	12 ~ 36개월 이하 3명 이상
코스	오리엔테이션 ▶ 자연놀이터, 교통기관, 작은생태전, 아기둥지 (1층 전시실) ※ 2시간 소요
관련 체험 프로그램	동화 구연 프로그램 <이야기 속으로 풍덩!> (10:30, 11:30) ※ 당일 관람 중 위 시간에 1층 아기둥지로 방문 시 참여 가능
운영 시간	화~금요일 1회차 10:00~12:00 / 2회차 11:00~13:00



동화 구연 자원봉사자 대상 워크숍

동화 구연 워크숍은 영아 단체 동화 구연 프로그램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동화 작가의 강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 강사를 포함한 내부 직원들도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 개요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13:30 ~ 15:30
장 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3층 문화사랑방
강 연 자	소중애 동화작가
강연 제목	동화작가로 산다는 것
강연 내용	동화작가로 살게 된 계기, 작가의 철학, 재미있게 책을 읽는 방법
참석 인원	총 15명



초등 단체 프로그램 <함께 지켜요! 경기도의 동식물 친구들>

초등 단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2~4학년 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미디어 아트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Colorful Jungle)’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컬러풀 정글 속 경기도의 멸종위기 동식물 11종의 멸종위기 원인과 보호방법을 학습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동식물과의 공생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현장 체험학습이 집중되는 시기인 5~6월, 9~10월에 운영된다.

교수학습지도안

기간	05.11. - 10.18.
대상	초등학생 2~4학년 단체 1팀
일시	화~금요일 10:00 - 12:00
장소	2층 교육실, 3층 별난 전시실
재료	검정색 하드보드지(A4), EL와이어 1개, AA건전지 2개, 전원 인버터(AA건전지용), 투명 테이프, 색연필, 페인트 마카



학습 목표	1. 미디어 아트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을 선 경험하고, 경기도 멸종위기 동식물 11종의 멸종위기 원인, 보호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2. 멸종위기 동식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해시태그를 만들어 네온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동식물과의 공생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개요 경기도 멸종위기 동식물 11종의 멸종위기 원인과 보호 방법을 배우고, 경기도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해시태그를 네온사인으로 만들어 본다.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전개	1. ‘멸종’과 ‘멸종위기’의 개념 이해하기 2. ‘컬러풀 정글’에 살고 있는 경기도 멸종위기 동식물 탐색하기 3. 룰렛 카드 게임을 통해 경기도 멸종위기 동식물의 멸종위기 원인과 보호 방법 이해하기 4. 경기도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해시태그를 네온사인으로 만들기
	마무리	1. 인사 및 마무리

초등단체프로그램 어린이 후기 !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가서 있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됐어요

재미있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재미있게 교육해주
셔서 감사합니다.

슬쩍 전에는 연중위생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 알뜰하게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 있어서 다음 네 또 가고
싶어요.

02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하나. 상반기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
둘. 하반기 일반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은 예술가, 과학자, 건축가 등 전문 분야의 전문가와 관내 에듀케이터가 공동으로 교육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교육·예술적 체득 과정을 강화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특화 프로그램이다. 전문가가 교육 강사로서 직접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참여 어린이들에게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체험의 경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2018년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은 ‘바람의 소리’를 주제로 선정하여 사운드 음향 효과 영역을 중심으로 바람에 대해 청각적으로 탐구해보는 연령별 상·하반기 프로그램 2종이 진행되었다.

하나. 상반기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

-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1

기간	05.26. - 06.23.	일시	매주 토요일 10:00~12:00
대상	초등 고학년(4~6학년) 10명	장소	배영환작 도서관 프로젝트-내일, 야외 꿈자람터, 상갈공원, 2층 교육실
재료	녹음 장비, 마이크, 붐 스탠드, 헤드폰, 소리 만들기 소품, 풍력측정기, 아이패드 등		
학습 목표	1. 시각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청각을 활용하여 우리 주변의 다양한 ‘바람’을 인지한다. 2. 바람의 여러 가지 소리를 발견하고 이를 조합해 붐으로써 예술적 감각을 확장할 수 있다. 3. 사운드 디자인 과정과 관련 직업군에 대해 이해하며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개요	1. 바람의 원리, 바람 소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2. 자연 속 바람 소리를 찾아 채집하고 재편집하여 청각을 통해 바람을 인지한다. 3. 직접 다양한 바람 소리를 만들어보며 바람 소리를 상상하고, 표현해본다. 4. 채집한 바람 소리를 기술적으로 재조합하여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본다.		
활동 내용	1회 <바람을 듣다> 바람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소리 감각을 확장하여 다양한 바람 소리 지각하기		
	2회 <바람을 모으다 I > 사운드 디자인과 사운드 관련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바람을 찾아 자연 속 바람 소리 채집하기(엠비언스)		
	3회 <바람을 모으다 II > 일상 소품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바람 소리를 만들고 채집하기(폴리)		
	4회 <바람을 만지다> 사운드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채집한 소리를 모아 하나의 음악으로 구성해보기		
	5회 <바람을 풀어내다> 사운드 효과를 입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여러 사람들과 작품 공유하기		



둘. 하반기 일반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2 (바람의 합주)

기간	09.15. - 10.27.	일시	매주 토요일 11:00~12:00
대상	초등 저학년(1~3학년)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야외 꿈자람터
재료	공기의 성질 실험상자, 나뭇가지, 금속, 종이, PVC, 실, 비즈, 방울, 깃털, 토본 등		
학습 목표	1. 바람과 소리, 바람 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청각에 집중해보며 소리 감각을 연다 2. 바람이 물체를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바람 소리를 탐색하고 조합해본다.		
개요	바람의 소리, 바람 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이 부딪치는 물체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는 바람 소리를 체감해보며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한 나만의 풍경을 만들어본다.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내가 만난 바람의 소리, 상황 등의 기억을 떠올리고 이야기 나누기	
	전개	1. 바람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기 - 온도차에 따른 공기의 이동 실험해보기 2. 소리는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기 - 성대의 떨림에 의한 소리 발생 관찰하기 - 돌고래, 박쥐 등 사례를 통해 매질을 통한 소리의 전달 이해하기 3. 소리 감각 열기 - 청력테스트를 통한 가청주파수 체감하기 - 소리만 듣고 대상 알아맞히기(여러 가지 일상 소리, 바람 소리) 4. 다양한 바람 소리를 담은 나만의 풍경 만들기	
	마무리	1. 가족 발표 2. 인사 및 마무리	



전문가연계프로그램 어린이 후기 !

선생님 Good!

3학년고 된 후유치로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 선생님은
매우고 있다

즐거웠을 줄것다

학생들이 좋다

기간이 길었다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친절하셔서 좋았다.

감사합니다~당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고품격 일거위까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오랜 준비하느라 () 해주셔서 더 더욱 많이 감사요~
다음에 또요~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정말 재미있었다 선생님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03

에코 아트 프로그램

하나. 개인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둘. 단체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셋.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넷. 예술인복지재단 연계 프로그램

에코 아트 프로그램은 화성시 여성 기업인 협의회 및 기타 경기도 기업에서 다양한 재활용품을 기부 받아 운영하는 업사이클(새활용) 프로그램이다. 개인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유아 단체 프로그램(누리과정 연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무료로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예술인(미술, 영상, 연극 분야)과 협업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하나. 개인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가족 단위의 개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에코 아틀리에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으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운영 개요

회차	운영 시간	참여 인원
1회	11:00 ~ 11:40	어린이 동반 가족 13팀
2회	12:00 ~ 12:40	
3회	13:00 ~ 13:40	
교육 재료 준비 및 정비 시간 14:00 ~ 15:00		
4회	15:00 ~ 15:40	어린이 동반 가족 13팀
5회	16:00 ~ 16:40	
6회	17:00 ~ 17:40	



둘. 단체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업사이클(새활용)의 근본적 목적인 자연보호 의미와 중요성을 배워보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으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월별 프로그램

월	누리 과정 연계 주제	프로그램 명
2~3월	우리 원과 친구들	나의 친구를 소개해요. - 친구 얼굴 만들기
4~5월	봄과 동식물	봄봄봄~ 봄이 왔어요! - 노래하는 종달새 마라카스 만들기
6~7월	여름과 건강	맛있는 바람이 불어요! - 과일·야채 부채 만들기
9~10월	가을과 자연	나뭇가지가 살아 움직여요! - 잠자리 만들기
11월	과학적 탐구하기, 자연현상 알아보기	바람으로 움직여요! - 바람으로 썩썩 자동차 만들기
12월	사회에 관심 갖기,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뽁뽁이는 내 친구 - 나만의 산타클로스 만들기



2~3월

나의 친구를 소개해요- 친구 얼굴 만들기

기간	02.02. - 03.30.	일시	평일 11:00~15:00
대상	유아 단체 (40명 내외)	장소	3층 에코 아틀리에
재료	다양한 스티로폼, 끈 색종이, 네임펜, 백업, 빨대, 과일 망 등		

학습 목표	1.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과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다양한 친구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특징을 알아보고 만들며 소통한다.

개요	누리과정 주제 '우리 원과 친구'를 연계한 미술활동 체험 프로그램으로 친구의 얼굴을 관찰한 후,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친구 얼굴을 만들어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에코 아틀리에 전시실 소개 2. 동기유발 - 나의 유치원과 반 이름 소개하기
	전개	1. 친구 얼굴 관찰하기- 옆의 친구 얼굴 마주보기- 친구의 얼굴을 관찰하고 특징을 이야기 해보기 2. 나의 친구를 소개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친구 얼굴의 특징을 담은 얼굴 만들어보기
	마무리	1. 자신이 만든 작품 발표하기 2. 인사 및 마무리



4~5월

봄봄봄~ 봄이 왔어요!- 노래하는 종달새 마라카스 만들기

기간	04.02. - 05.31.	일시	평일 11:00~15:00
대상	유아 단체 (40명 내외)	장소	3층 에코 아틀리에
재료	플라스틱 병, 종이, 컬러 비즈, 백업, 수수깡, 다양한 곡물, 싸인펜, 가위		

학습 목표	1. 봄을 알리는 새를 알아본다. 2. 마라카스 악기에 대해 알아본다. 3. 마라카스에 다양한 물건들을 담아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고 이해해본다. 4. 각자 개성 있는 종달새 마라카스를 만들어본다.
----------	--

개요	누리과정 주제 '봄과 동식물'을 연계한 미술활동 체험 프로그램으로 봄을 알리는 새를 알아본 후, 재활용품과 자연물을 이용한 마라카스를 만들어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에코 아틀리에 전시실 소개 2. 동기유발 - 봄을 알리는 새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개	1. 마라카스에 대해 알아보기 2. 만들고 싶은 종달새 모양 생각해보고 종달새 마라카스 만들어보기
	마무리	1. 자신이 만든 마라카스 흔들면서 연주해보기 2. 인사 및 마무리



6~7월

맛있는 바람이 불어요!- 과일·야채 부채 만들기

기간	06.01. - 07.13.	일시	평일 11:00~15:00
대상	유아 단체 (40명 내외)	장소	3층 에코 아틀리에
재료	편지, 두꺼운 종이, 백업, 수수깡, 종이, 색종이, 가위, 풀, 네임펜		

학습 목표	1. 여름에 먹는 야채와 과일에 대해 알아본다.
	2. 더위를 식혀주었던, 기억나는 과일과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3.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도구에 대해 알아본다.

개요	누리과정 주제 ‘여름과 건강’을 연계한 미술활동 체험 프로그램으로 여름의 제철 과일과 채소를 알아보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부채를 만들어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에코 아틀리에 전시실 소개 2. 동기유발 - 여름에 먹는 채소와 과일에 대해 알아보기 - 더운 여름 시원하고 맛있게 먹었던 과일과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개	1. 무더운 더위를 식혀주는 도구에 대해 알아보기 2. 만들고 싶은 과일과 채소 모양을 생각해보고 과일·야채 모양 부채 만들어보기
	마무리	1. 각자 만든 부채 부쳐보고 옆에 친구도 시원하게 부채 부쳐주기 2. 인사 및 마무리



9~10월

나뭇가지가 살아 움직여요!- 잠자리 만들기

기간	09.04. - 10.31.	일시	평일 11:00~15:00
대상	유아 단체 (40명 내외)	장소	3층 에코 아틀리에
재료	나뭇가지, 접착 스펀지, 모루, 빵곤, 비즈, 과일망, 가위 테이프 대체 재료(접착 스펀지→두꺼운 종이, 모루→공예철사, 빵곤→털실, 비즈→폼폼이)		

학습 목표	1. 여름에 먹는 야채와 과일에 대해 알아본다. 2. 더위를 식혀주었던, 기억나는 과일과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3.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도구에 대해 알아본다.
----------	---

개요	누리과정 주제 '여름과 건강'을 연계한 미술활동 체험 프로그램으로 여름의 제철 과일과 채소를 알아보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부채를 만들어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에코 아틀리에 전시실 소개 2. 동기유발 - 여름에 먹는 채소와 과일에 대해 알아보기 - 더운 여름 시원하고 맛있게 먹었던 과일과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개	1. 무더운 더위를 식혀주는 도구에 대해 알아보기 2. 만들고 싶은 과일과 채소 모양을 생각해보고 과일·야채 모양 부채 만들어보기
	마무리	1. 각자 만든 부채 부쳐보고 옆에 친구도 시원하게 부채 부쳐주기 2. 인사 및 마무리



11월

바람으로 움직여요!- 바람으로 씹씹 자동차 만들기

기간	11.01. - 11.30.	일시	평일 11:00~15:00
대상	유아 단체 (40명 내외)	장소	3층 에코 아틀리에
재료	빨대, 이쑤시개, 백업, 종이컵, 테이프		

학습 목표	1.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 알아본다. 2. 바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 볼 수 있다. 3.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어 이야기해본다.
----------	---

개요	누리과정 주제 과학적 탐구하기, 자연현상 알아보기를 연계한 미술활동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의 힘을 알아보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바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에코 아틀리에 전시실 소개 2. 동기유발 - 바람의 힘으로 사물을 움직여보기
	전개	1. 만들고 싶은 자동차 모양 생각해보고 만들어보기
	마무리	1. 바람 자동차로 경주하며 풍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2. 인사 및 마무리



12월

뽁뽁이는 내 친구- 나만의 산타클로스 만들기

기간	12.04. - 12.18.	일시	평일 11:00~15:00
대상	유아 단체 (40명 내외)	장소	3층 에코 아틀리에
재료	에어캡(뽁뽁이), 비즈, 모루, 폼폼이, 색종이, 가위, 투명 테이프, 양면 테이프		
학습 목표	1.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2.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나만의 산타클로스를 만들어 본다. 3.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나만의 산타클로스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개요	누리과정 주제 '사회에 관심 갖기,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를 연계한 미술활동 체험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보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본다.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에코 아틀리에 전시실 소개 2. 동기유발 -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기	
	전개	1. 산타클로스 모습의 특징 이야기 나누기 2.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산타클로스 만들기	
	마무리	1. 자신의 산타클로스를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기 2. 인사 및 마무리	



셋.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 종이야 놀자

기간	03.01. - 12.31.	일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대상	유아 대상 가족 및 단체 관람객		11:00~17:00
재료	종이, 다양한 재활용 재료, 나뭇가지, 나무 판, 색종이, 매직, 색연필, 물감 등	장소	3층 에코 아틀리에
학습 목표	1. 종이를 만드는 재료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본다. 2. 1차적 자연물 재료인 나무로 만든 종이를 통해 종이의 종류와 쓰임, 그 특징을 탐색해본다. 3. 종이가 어린이의 창의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재활용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4. 종이를 이용해 공동 작품을 제작하는 정크아트를 경험하며 협동심을 키운다.		
개요	에코 아틀리에 공간 탐색과 재활용 종이를 이용하여 조형예술 작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재활용의 의미를 알아본다.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에코 아틀리에 전시실 소개 2. 동기유발 - 생활 속에서 종이의 쓰임새 이야기 해보기 - 종이의 종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전개	1. 재활용 종이를 이용하여 우리들이 사는 집 만들기 (개인 작품) 2. 각자의 집을 모아 마을 만들기 (공동 작품)	
	마무리	1. 마을 속 인물이 되어 역할활동 해보기 2. 인사 및 마무리	



넷. 예술인복지재단 연계 프로그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과 함께 스토리를 구성하여 영상 미디어, 사운드 아트, 설치미술, 연극 등을 활용해 예술적 표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변 자연 환경을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탐색하며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점을 어린이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부 프로그램

기간	장소	프로그램 명
07.31. - 08.15. (총 6회 운영)	에코 아틀리에, 컨테이너 라이브러리, 야외 용뒀산 일대	용뒀산 Hero
09.02. (1회 운영)	야외 전시	라인 테이프 드로잉 퍼포먼스

용매산 Hero

기간	07.31. - 08.15.	일시	매주 화·수요일 10:00~12:00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	장소	에코 아틀리에, 컨테이너 라이브러리, 야외 용매산 일대
재료	나무 조각, 나무 판, 촬영장비, 종이, 사이펜, 색연필, 연필 등		

학습 목표	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변 자연 환경을 탐색하고 알아본다. 2. 자연 환경 속 일상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3. 문제 해결 과정을 나무 드로잉기법으로 표현해본다. 4. 활동의 결과물인 영상을 상영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	--

개요 아이들 스스로 용매산의 환경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나무로 드로잉하고 스토리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관람객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논술과 예술을 결합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

1회차	용매산의 자연과 생명	- 프로그램 설명 - 나만의 아지트 드로잉 - 나무 재료 탐색 및 시범
2회차	어느 날 용매산에 닥친 사건	- 나의 이름 나무로 만들기 - 용매산의 환경 문제 드로잉 - 무더위 속 용매산 모습 나무 드로잉
3회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Hero들의 능력	- 나만의 Hero캐릭터 드로잉 - 나만의 Hero캐릭터 나무 드로잉
4회차	Hero, 용매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	- 용매산의 환경 문제 개인의 해결 방안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 - 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회의
5회차	평화로운 용매산	- 영상에 들어가 스토리 구성 정리 - 영상 인터뷰 - 인터뷰 영상 촬영
6회차	제작 영상 상영회 2회	- 제작 영상 상영 - 영상 촬영 과정 설명 - 참여 어린이 소감 발표



라인 테이프 드로잉 퍼포먼스

기간 09.02.
대상 일반 관람객
재료 색갈 종이 테이프

일시 10:00~16:00
장소 야외 전시

학습 목표 미술과 연극 분야에서 활동하는 두 명의 예술인의 기획이다. 종이테이프 재료를 활용하여 가느다란 선 형태를 확장시켜 패턴 혹은 경계, 모양 등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아주 복잡하고 흥미로운 기하학 패턴 등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종의 공간 경계, 장식적 문양 등 다양한 요소로 만들어 질 수 있다.



04

특별 교육 프로그램

하나. 어린이날 행사

둘. 방학 프로그램

셋. 명절 프로그램

넷. 문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관람객이 집중되는 어린이날, 여름·겨울방학, 명절을 맞이하여 운영된다.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예술·과학·기술·인문학·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이다. 또한, 박물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정 대상(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명절 프로그램, 문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하나. 어린이날 행사

- 빛나라 천년!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 어린이

2018년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 간 운영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G-뮤지엄 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2018년은 경기도가 ‘경기’라고 불린 지 천년이 되는 해로, 미래 천년을 살아갈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활동들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의 권리 신장에 앞장섰던 소파 방정환의 정신을 이은 대한민국 어린이헌장(1957)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융합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총 24종을 개발 및 운영하였다.

어린이날 행사 세부 프로그램 ※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개발 및 운영한 프로그램만 수록함

프로그램 명	내용	대한민국 어린이헌장+경기도 특성
피노키오와 함께 하는 판타지쇼, DREAM!	명작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을 각색한 공연	현장0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 문화예술 창작의 플랫폼, 경기도
매직 버블쇼	마술과 버블을 결합한 공연 을 보고, 직접 버블 체험하기	
새콤달콤 아트 솜사탕	동물, 꽃 모양 솜사탕의 맛 체험하기	
내 친구 반려식물, 다 육이	실내 공기순환에 좋은 다육이를 화분에 심어보기	현장02. 어린이는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 자연 친화 도시, 경기도
흙으로 그리는 우리 가족 얼굴	흙으로 만든 크레파스로 우리 가족 얼굴 그려보기	현장01. 어린이는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한다. + 문화예술 창작의 플랫폼, 경기도
평화의 꿈을 담 은 드림캐처	남북평화의 꿈을 담은 드림캐처 만들기	현장11. 어린이는 인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 남북 이념의 접경지, 경기도

새싹 액자	새싹 채소 씨앗을 CD 케이스에 심어보기	현장02. 어린이는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 자연 친화 도시, 경기도
우리 가족 걱정인형 만들기	우리 가족 걱정을 대신해 줄 걱정인형 만들기	현장01. 어린이는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야한다. + 문화예술 창작의 플랫폼, 경기도
우리가 그려요! 컬러풀 정글	미디어 전시 ‘컬러풀 정글’ 동물 그리기	현장08. 어린이는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 첨단 융합 기술의 중심지, 경기도
아?아!아~ 목소리 모양이 보이네?!	목소리를 관찰하는 오실로 스코프를 만들고, 목소리 모양을 액자에 담아보기	현장07. 어린이는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 실험과 창작의 보고, 경기도
우리 가족 지문을 액자에 담아보자!	가족의 지문이 담긴 액자 만들기	
어린이와 함께 하는 경기 천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협력 운영)	피에로가 만드는 요술 풍선과 경기 천년 기념품 받기	현장0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 천년 역사의 보고, 경기도



둘. 방학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은 1년 중 관람객이 가장 집중되는 기간에 운영되는 특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어린이의 성장과정에서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예술·과학·기술·음악·인문학 등을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이다. 2018년 1월에는 ‘멸종위기 동물을 지키는 방법’, 7~8월에는 ‘물 보존’을 주제로 환경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였다.

방학 프로그램 현황

기간	프로그램 명	참여 인원
2017.12.23. - 2018.01.14.	정글 속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4,561명
2018.07.26. - 2018.08.17	맑은 물아, 고마워!	15,957명



2017-18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 정글 속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2017-18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2017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새단장 프로젝트로 진행한 미디어 전시 ‘컬러풀 정글(Colorful Jungle)’과 연계한 것으로, ‘멸종위기 동물을 지키는 방법’을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멸종위기 동물’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17년 7가지 환경 이슈 중 하나이며, 경기도에서도 2012년 경기도 보호 야생 동식물을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이 동물을 지키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미술, 음악, 공예, 생태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프로그램 6종을 개발 및 운영하였다.

겨울방학 프로그램 구성

구분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가족 프로그램	사막여우를 지키는 손가락 목도리 만들기	사막여우가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를 알아보고, 손가락으로 뜨개질을 하여 목도리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북극곰을 살리는 나의 작은 초록 식물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인 지구 온난화를 알아보고, 공기 정화 식물을 심어 보는 프로그램
예술작가 연계 프로그램	내가 지켜요! 컬러풀 정글 도레미송	예술작가와 함께 컬러풀 정글 속 멸종위기 동물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배워보고, 직접 뮤지컬 공연을 해보는 프로그램
도슨트 프로그램	모자란 탐정 연구소: 컬러풀 정글을 지켜라!	‘컬러풀 정글’ 전시를 직접 체험하고, 도슨트의 전시적인 설명과 예술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을 이해하는 프로그램
새활용 프로그램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 멸종위기동물 보호 피켓 만들기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캠페인 피켓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연계 프로그램	컬러풀 정글 동물들과 함께 메리크리스마스! - 멸종위기 동물 오너먼트 만들기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본 후, 멸종위기 동물을 직접 그리고 메시지를 작성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 크리스마스 연계 프로그램은 2017.12.23.-12.25.까지 운영되었으나,
2017-18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구성 상 2018년 교육결과자료집에 수록함

사막여우를 지키는 손가락 목도리 만들기

기간	2017.12.23. - 2018.01.14.	일시	매주 화~일요일 11:30, 13:0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재료	페브릭 안 실 1타래, 가위, 솜방울		

학습 목표	1. 사막여우의 멸종위기 원인을 알아보고, 사막여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2.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를 알아보고, 모피와 인조섬유의 따뜻함을 비교해본다. 3. 부모와 어린이가 핑거 니팅 기법으로 목도리를 함께 뜨며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협동 경험을 갖는다.
----------	--

개요	사막여우의 멸종위기 원인을 알아보고, 모피와 인조섬유를 직접 만져보면서 모피와 인조섬유의 따뜻함을 비교해본다. 그리고 나서 인조섬유의 하나인 아크릴 털실로 핑거 니팅 기법으로 목도리를 만들어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사막여우의 생김새 이해하기
	전개	1. 사막여우의 멸종위기 원인 알아보기 2. 동물 모피와 인조 모피를 오감으로 탐색하기 3.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대체재료) 알아보기 4. 아크릴 털실로 핑거 니팅 목도리 만들기
	마무리	1. 가족 발표 2. 인사 및 마무리



북극곰을 살리는 나의 작은 초록 식물

기간	2017.12.23. - 2018.01.14.	일시	매주 화~일요일 14:30, 16:0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재료	공기 정화 식물, 화분, 배양토, 얼음조각, 접시, 종이, 모종삽		

학습 목표	1. 북극곰의 멸종 원인(지구온난화)을 이해할 수 있다.
	2. 북극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본다.
	3. 공기 정화 식물을 심어봄으로써 북극곰을 지킬 수 있음을 이해한다.

개요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한 원인을 알아보고, 지구온난화와 북극곰의 멸종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본다. 그리고 나서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공기 정화 식물을 심어보면서 북극곰을 지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한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북극곰의 멸종 위기 원인 이해하기
	전개	1. 뜨거운 지구 속 얼음이 녹는 속도 실험하기 2. 북극곰이 되어 얼음 위에서 살아남는 놀이를 통해 북극곰의 생존 환경을 간접 경험하기 3. 북극곰의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기 4. 북극곰을 살리는 공기 정화 식물 심기
	마무리	1. 가족 발표 2. 인사 및 마무리



내가 지켜요! 컬러풀 정글 도레미 송

기간	2017.12.26. - 2018.01.07.	일시	화~일요일 15:00, 16:30
대상	초등학생(8세 이상) 15명	장소	3층 에코 아틀리에
재료	멜로디언 1개, 컬러풀 정글 동물 5종 왕관, 스피커, 마이크		

학습 목표	1. 역할극을 통해 컬러풀 정글 속 동물들의 멸종 위기 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동물보호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2. 뮤지컬의 3요소인 춤, 노래, 연기를 배우며 예술의 심미적 기능을 체험한다. 3. 함께 목소리를 모아 노래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를 배운다.
----------	--

개요	컬러풀 정글 속 멸종위기 동물 5종을 보호하는 내용의 뮤지컬을 배우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연 예술을 경험한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컬러풀 정글 속 멸종위기 동물 5종 소개
	전개	1. 멸종위기 동물 역할 정하기 2. 다양한 장면에 맞추어 역할극 체험하기 3. 컬러풀 정글 도레미송 배우기 4. 장면 연기와 노래를 연결하여 한편의 뮤지컬 만들기
	마무리	1. 뮤지컬 발표 2. 인사 및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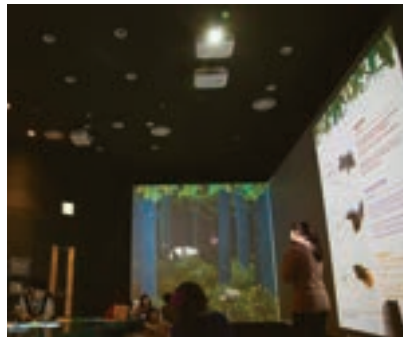
모자란 탐정 연구소: 컬러풀 정글을 지켜라!

기간	2017.12.23. - 2018.01.14.	일시	매주 화~일요일 14:00, 16:00
대상	초등학생(8세 이상) 15명	장소	3층 별난 전시실
재료	전시 연계 활동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학습 목표	1. 미디어 전시 컬러풀 정글과 연계하여 경기도 멸종위기 동식물의 멸종위기 원인과 보호방법을 알 수 있다. 2. 미디어 전시를 체험하고, 전시 연계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다. 3. 체험 활동을 통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식물과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	---

개요	미디어 전시 '컬러풀 정글'과 연계하여 전시를 직접 체험하고, 도슨트의 전시 설명과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 동식물을 다각적으로 이해한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멸종'의 개념 이해하기
	전개	1. 전시 연계 활동지 활동 2. 미디어 전시 '컬러풀 정글' 체험하기
	마무리	1. 동식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발표하기 2. 인사 및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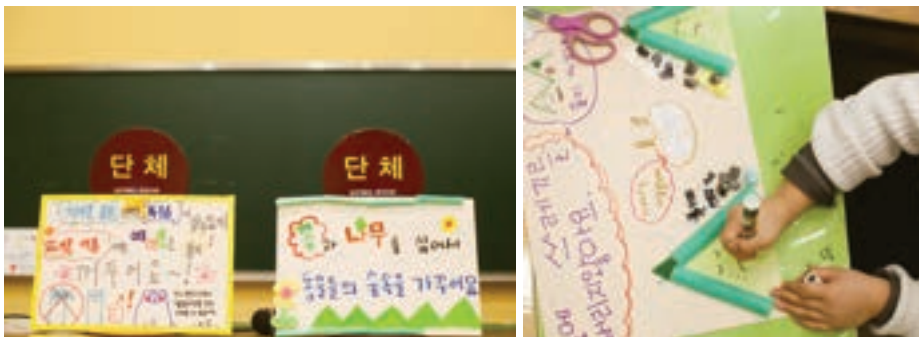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멸종위기동물 보호 피켓 만들기

기간	2017.12.23. - 2018.01.14.	일시	매주 화~일요일
대상	어린이 동반가족 15팀		10:30, 12:00, 13:30, 15:00, 16:30
재료	하드보드지, 크레파스, 유성매직, 백업, 가위, 풀, 스펀지 등 재활용품	장소	3층 에코 아틀리에

학습 목표	1.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2.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여 멸종위기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피켓을 만들 수 있다.
----------	---

개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여 멸종위기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피켓을 만들어 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캠페인에 대해 알아보기
	전개	1. 멸종위기동물 보호를 위한 실천방법 생각하기 2. 멸종위기동물 보호 캠페인 피켓 만들기
	마무리	1. 가족 발표 2. 인사 및 마무리



컬러풀 정글 동물 친구들과 함께 메리크리스마스! -멸종위기 동물 오너먼트 만들기

기간	2017.12.23. - 2017.12.25.	일시	토~월요일
대상	제한 없음		10:30~12:30, 13:30~15:30
재료	크라프트지, 유성매직, 색연필, 끈, 스테이플러, 아일렛 펀치	장소	1층 초등학교에 간다면? 옆
학습 목표	1. 안내판에 소개 된 멸종위기 동물을 알아보고,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2. 멸종위기 동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알 수 있다. 3.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개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과 그 원인을 알아보고,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나서 멸종위기 동물을 그린 크리스마스트리 오너먼트를 만들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적고 기억한다.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멸종위기 동물들 알아보기	
	전개	1. 멸종동물이 그려진 오너먼트 만들기	
	마무리	1. 인사 및 마무리	



2018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 맑은 물아, 고마워!

2018년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은 9월을 끝으로 7년간의 운영을 종료하는 <한강과 물> 상설전시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취지에서 ‘물’을 주제로 한 6종의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유엔(UN)에서는 2018-2028년 기간을 ‘깨끗한 물과 위생’을 실천하기 위한 ‘WATER ACTION DECADE(수자원 조치 10개년 계획)’으로 지정하며 물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한강과 물> 전시를 되짚어 봄과 동시에 국제적 시의성을 지닌 ‘물’을 2018년 여름방학 프로그램의 대주제로 선정하여 물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해보고, 공공재로서의 물의 소중함을 체감해 볼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4종과 상설 프로그램 2종을 동시 기획 · 운영하였다.

여름방학 프로그램 구성

구분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가족 프로그램	지구도 우리도 건강하게! 꿀꺽꿀꺽 시원한 차 만들기	물의 여러 가지 종류와 식수의 부족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와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나만의 차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멀리멀리 쏘아보자, 워터페인팅!!	분무기의 원리를 알아보고 페트병과 분무기를 활용하여 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워터 페인팅 도구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새활용 프로그램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부르는 도구 만들기 콘테스트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제에 대해 알아보고,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나만의 도구를 자유롭게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행사성 프로그램	수초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다양한 수중 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가족과 살게 될 수초를 위해 수초의 집을 꾸며보는 프로그램
상설 프로그램	신통방통 러닝테이블 - 덩동덩동 물 실로폰	물 실로폰을 자유롭게 연주해보며 소리가 나는 원리와 물의 양에 따른 소리의 높낮이 차이에 대해 탐구해보는 프로그램
	컬러풀 정글 그리기 프로그램	환경을 보호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컬러풀 정글에 나만의 동물을 띄워보며 자연 환경 보존과 멸종위기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느껴보는 프로그램

지구도 우리도 건강하게! 꿀꺽꿀꺽 시원한 차 만들기

기간	2018.07.26. - 2018.08.17.	일시	매주 화~일요일 11:30, 13:0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재료	보틀, 물, 티백, 말린 과일, 허브잎, 동굴레, 오미자, 녹차, 이름표 등		
학습 목표	1. 지구상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종류와 식수의 부족에 대해 알아본다. 2.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법, 물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물 정수 과정을 체험한다 3.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물을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본다.		
개요	식수의 종류와 물 부족·오염에 따른 현상과 물이 우리 곁으로 오는 과정을 탐색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물을 맑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며 환경을 살리는 건강하고 소중한 물 한 병을 만들어 본다.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물 탐색하기 3. 물 관련 오늘날의 현상들 알아보기	
	전개	1.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곁으로 오는지 알아보기 - 물 정수 과정 직접 체험해보기 2. 깨끗한 물을 오래도록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기 3. 소중한 물을 더 건강하게 마시는 한 병의 차 만들어보기 - 오감으로 재료 탐색, 재료별 효능 알아보기 - 티백 안에 원하는 재료를 넣어 나만의 차 만들기	
	마무리	1. 인사 및 마무리	



멀리멀리 쏘아보자, 워터페인팅!!

기간	2017.07.26. - 2017.08.17.	일시	매주 화~일요일 13:30, 15:3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2층 교육실
재료	페트병, 분무기 헤드, 유성 매직, 글루건, 테이프, 가위		

학습 목표	1. 분무기 등 생활 속에서 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와 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물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알 수 있다. 2. 물을 쏘아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 마르는 과정을 보며 증발에 대해 알 수 있다. 3. 체험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	--

개요	물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아본 후, 물을 쏘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워터페인팅 도구를 만들어 본다. 그 후 물을 쏘아 그림을 그리며 그림이 마르기 전에 사진을 찍어 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생활하며 물을 사용하는 사례를 알아보고 발표하기
	전개	1. 워터페인팅 도구의 사용 방법과 관련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 기압과 액체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기 - 분무기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기 2. 워터페인팅 도구 만들기 3. 밖에 나가 물을 쏘아 그림 그려보기
	마무리	1. 인사 및 마무리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부르는 도구 만들기 콘테스트

기간	2018.07.26. - 2018.08.17.	일시	매주 화~일요일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3팀		10:30, 12:00, 13:30, 15:00, 16:30
재료	재활용 재료들(경기도어린이박물관 대나무, 페트병, 계란판 등), 기우제 안내 자료 등	장소	3층 에코아트리에

학습 목표	1. 비와 관련된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고, 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2. 기우제 도구를 상상해보고, 재활용 재료들을 재활용하여 나만의 창작품을 만들어본다.
------------------	--

개요	1. 비가 내려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기우제에 대해 알아본다. 2. 기우제에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참고하여, 비를 부르는 나만의 도구를 만들어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에코아트리에 소개 2. 재활용과 재활용의 의미 전달 3.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해보기
	전개	1. 세계 여러 나라의 기우제와 기우제에 사용된 도구 알아보기 2. 재활용 재료를 재활용하여 비를 부르는 나만의 도구 만들기
	마무리	1. 만든 작품들을 공유하고 사진을 찍어 콘테스트에 참여해보기 2. 인사 및 마무리



수초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기간	2017.07.26. - 2017.08.17.	일시	매주 화~일요일 11:30, 12:30
대상	4세 이상 어린이(권장)	장소	1층 복도
재료	플라스틱 컵, 색모래, 수초, 이름표		

학습 목표	1. 수생식물의 개념과 종류를 배움으로써 물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반려식물의 의미를 배우고 생명(식물, 동물)과 함께하기 전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	---

개요	수생식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 후, 수초가 살 집을 꾸며본다. 이후 수초의 이름을 쓰고 가족이 된 수초가 살 집에 붙여본다.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전개	1. 수초가 사는 집을 꾸미고 이름표 만들기 - 컵에 색깔 모래를 담고 수초의 이름을 지어주기 2. 수초의 집에 수초 담기
	마무리	1. 인사 및 마무리 - 가족이 된 수초를 소중히 키우겠다고 약속하기



셋. 명절 프로그램

에코 아틀리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업사이클(재활용)의 근본적 목적인 자연보호 의미를 배워보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으로 창의력을 증진시키고자 기획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과 만월 명절인 추석에 맞아 전국에서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명절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간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2.14. - 2.18.	설날 특별 프로그램 복을 부르는 행운의 복주머니 만들기	우리나라의 전통 풍습인 복주머니 선물에 대해 알아보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복주머니를 만들어 가족에게 선물해보는 프로그램
9.22. - 9.26.	추석 특별 프로그램 우리 집에도 보름달이 걸렸어요	만월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강강술래와 달맞이 풍습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보름달’ 조명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복을 부르는 행운의 복주머니 만들기

기간	02.14. - 02.18.	일시	설 연휴 기간 11:00~17:0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3층 에코 아틀리에
재료	에어캡(뽁뽁이), 과일망, 모루, 끈, 색종이, 백업, 재활용품, 테이프 등		

학습 목표	1. 우리나라 명절인 설에 대해 알아본다. 2. 설의 풍습이 복주머니 선물에 대해 알아본다. 3. 재활용 재료로 복주머니를 만들고 선물해 본다.
--------------	--

개요	우리나라 전통 풍습인 복주머니 선물에 대해 알아보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복주머니를 만들어 보고 가족에게 선물해 보면서 가족애를 느끼는 프로그램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에코 아틀리에 전시장 소개 2. 동기 유발 - 우리나라 명절이 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전개	1. 복주머니에 대해 알아보기 - 복주머니를 선물 받고 선물 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복주머니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2. 재활용품을 활용한 복주머니 만들어보기
	마무리	1. 자신의 복주머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2. 가족에게 선물하기 3. 인사 및 마무리



우리 집에도 보름달이 걸렸어요

기간	09.22. - 09.26.	일시	추석 연휴 기간 11:00~17:0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3팀	장소	3층 에코 아틀리에
재료	돔형 화과자 케이스, LED 티라이트, 습자지, 끈, 네임펜, 꾸미기 재료 등		

학습 목표	1. 추석을 맞이하여 강강술래와 달맞이 풍습에 대해 알아본다. 2. 재활용 재료로 '보름달' 조명을 만들어본다. 3. 가족과 작품을 감상하고, 보름달에게 빌고 싶은 소원을 이야기 나눈다.
------------------	--

개요	추석을 맞이하여 강강술래와 달맞이 풍습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보름달' 조명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	--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에코 아틀리에 전시장 소개 2. 동기유발 - 추석의 풍습에 대해 알아보기 - 강강술래와 달맞이 풍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전개	1.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보름달' 조명 만들기
	마무리	1. 우리집 '보름달' 조명 발표하기 2. 올해 추석에 보름달에게 빌고 싶은 소원 이야기 나누기 3. 인사 및 마무리



넷. 문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문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박물관에 오기 힘들거나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기 쉽지 않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018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박물관의 초등 단체 프로그램인 ‘함께 지켜요! 경기도의 동식물 친구들’과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찾아가 소아병동 환우를 대상으로 손인형극 ‘감투 쓰고 소가 된 농부’, VR 체험 프로그램 ‘곤충은 숨바꼭질 대장!’을 운영하였다.

문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간	장소	프로그램 내용	참여 인원
05.30.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교육실	함께 지켜요! 경기도의 동식물 친구들	16명
08.14.	아주대학교병원 본관 6층 친환경도서실	손인형극 ‘감투 쓰고 소가 된 농부’ VR 체험 ‘곤충은 숨바꼭질 대장!’	62명



VR 체험 프로그램

- 곤충은 숨바꼭질 대장!

기간	08.14.	일시	화요일 10:40~11:20
대상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장소	아주대학교병원 본관 6층 친환경도서관
재료	VR 카드보드, 색연필, 사인펜, OX 막대, 장수풍뎅이 표본, 데코 나비, 겹눈 렌즈		
학습 목표	1. 곤충의 위장술(보호색)을 알아보고, 카드보드에 위장술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장수풍뎅이, 사마귀의 특징을 알아본다. 3. 구글 익스피디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VR 체험을 해본다.		
개요	구글 익스피디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숲에 살고 있는 곤충들을 찾아보는 VR 체험을 해본 후, 보르네오 숲에 살고 있는 사마귀와 장수풍뎅이의 특징을 OX 퀴즈를 통해 알아본다. 그리고 나서 VR 카드보드에 곤충의 위장술을 채색 활동을 통해 표현해본다.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위장술(보호색)을 하는(띠는) 곤충 찾아보고, 보호색의 개념 이해하기	
	전개	1. 구글 익스피디션 VR 체험하기 2. 사마귀, 장수풍뎅이의 특징에 관한 OX 퀴즈 활동하기 3. VR 카드보드에 곤충의 위장술(보호색) 표현하기	
	마무리	1. 인사 및 마무리	



· ‘함께 지켜요! 경기도의 동식물 친구들’ 프로그램의 학습지도안은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내에 수록되어 있음

05

학령기 준비 프로그램

- 초등학교에 간다면?

학령기 준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입학 앞 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준비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환경 변화와 사회생활 적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초등학교 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최초 체험형 프리 스쿨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개인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1종, 유아 단체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관람객 대상 ‘초등학교에 간다면?’ 프로그램

기간	11.10. - 12.25.	일시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
대상	6,7세 유아 1명+보호자 1명, 총 10팀		13:00, 14:00, 15:00
재료	가방 기기, 준비물, 알림장, 색연필, 활동지, 방석, 종소리 음원, 물백묵, 지우개 등	장소	1층 <초등학교에 간다면?>
학습 목표	1. 스스로 준비물을 챙기고 학교에 가는 체험을 통해 자립심을 기를 수 있다. 2. 등교 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 3.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익히고 초등학교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개요	집에서 책가방을 챙겨 학교로 가는 과정,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 체험을 통해 새로이 마주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초등학교 입학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함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알림장을 보고 책가방 챙기기 3. 횡단보도를 건너 안전하게 학교에 가기	
	전개	1. 교실 및 주변 탐색하기 2.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기 3. 초등학교 선배인 어린이 자문단 친구들과 초등학교에 대해 묻고 답하기 4. 자문단 어린이가 알려주는 활동 함께 해보기	
	마무리	1. 알림장에 다음 시간 준비물 적기 2. 인사 및 마무리	



단체 관람객 대상 ‘초등학교에 간다면?’ 프로그램

기간	11.14. - 12.14.	일시	매주 화~금요일
대상	6,7세 유아 단체 20명 이내		10:30, 11:30, 12:30
재료	책가방 기기, 준비물, 알림장, 색연필, 활동지, 방석, 종소리 음원, 물백묵, 지우개 등	장소	1층 <초등학교에 간다면?>
학습 목표	1. 스스로 준비물을 챙기고 학교에 가는 체험을 통해 자립심을 기를 수 있다. 2. 등교 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 3.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익히고 새롭게 만나는 친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다.		
개요	집에서 책가방을 챙겨 학교로 가는 과정,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 체험을 통해 새로이 마주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활동 내용	도입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2. 알림장을 보고 책가방 챙기기 3. 횡단보도를 건너 안전하게 학교에 가기	
	전개	1. 교실 및 주변 탐색하기 2.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기 3. 미래의 내 짝꿍을 상상하여 그리고 발표해보기	
	마무리	1. 알림장에 다음 시간 준비물 적기 2. 인사 및 마무리	



06

외부 자원 프로그램

- 부모 교육 프로그램 <행복수업>

행복수업은 (주)한샘의 후원으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6년째 진행하고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8년 행복수업은 후원 기업의 요청에 따라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기획 및 운영하였다. 더불어, 올해 경기문화재단 미디어마케팅팀의 부모교육 토크 콘서트 ‘부모, 길을 묻다’를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공동 기획·지원함에 따라 ‘행복수업과’ 부모, 길을 묻다’를 연계하여 박물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심층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학부모 대상 인문학 토크 콘서트

<부모, 길을 묻다>

<부모, 길을 묻다>는 경기 정명 천년을 기념하여 경기문화재단 미디어마케팅팀과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협업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다. 변화한 사회 환경과 다층화된 교육 환경을 반영해 대다수의 부모들이 고민하는 5가지 공통 이슈를 선정하여 올바른 자녀 교육과 좋은 부모로서의 성장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마련하였다.

토크 콘서트 구성

일자	강연자(소속)	강연 명	강연 내용
07.15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 진흥원 원장)	옛날엔 자녀 교육, 이제는 부모 교육	역사 속 인물들의 자녀 교육 사례와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 가치관 및 변화에 따른 문제점
07.15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 소장)	성교육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여성성, 남성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어린이 성범죄 예방 및 대처 방법
07.22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안 사주면 못 견디고 사주면 후회	어린이의 스마트 기기 사용 방법은 어떠해야 할까?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 교육 방법
07.22	이유남 (서울명신초등학교 교장)	욕심을 버리면 아이들이 자란다	부모의 자존감 또는 자녀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
08.26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소개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특성을 가진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 소개



1박 2일 행복캠프

<시골벽적 박물관 속 한여름 밤>

기간 08.25. - 08.26. 장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내
대상 한부모가정 10가족

	일자	시간	장소	활동 내용
세부 프로그램	8.25	15:00~16:00	2층 공연장, 어린이 쉼터	참가 확인 및 짐 풀기
		16:00~18:00	2층 교육실	가족 활동 사전 놀이
		18:00~19:30	2층 교육실	저녁 식사
		19:30~21:00	박물관 전시실	야간 박물관 자유 관람, 보물 찾기
		21:00~	어린이 쉼터	취침 준비 및 취침
	08.26	9:00~10:00	어린이 쉼터	아침 식사
		10:00~12:30	3층 문화사랑방, 2층 공연장	부모 교육 프로그램 - 한부모가정을 위한 국가 정책 서비스 안내 (황은실 한부모가족심리상담소 소장) -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다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10:00~12:30	에코아틀리에, 2층 교육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 에코아틀리에 프로그램 - 손 인형극 <감투 쓰고 소가 된 농부> - 곤충은 숨바꼭질 대장 (VR체험 교육 프로그램)
		12:30~14:00	어린이 쉼터	점심 식사
		14:00~	어린이 쉼터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및 퇴소

1박 2일 행복캠프 어린이 후기!

어제도 재미있었고 오늘도 재미있었는데
그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었다.

엄마하고 같이여서 행복했습니다.

아~~~~~ 작 좋았다!

재미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도 보물 찾기

대게 재미있었어요

III. 교육 간담회

2018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 간담회

2018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 간담회는 한 해 동안 박물관에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운영 내용 등을 총 평가하는 자리이다. 기관장을 비롯하여 학예팀장, 에듀케이터, 교육 강사(주/보조 강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연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좋았던 점, 개선 방안 등을 논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관리하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관계자가 합심하여 집단지성으로 박물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운영 개요

일시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10:00 ~ 14:00	참석인원	총 15명
장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3층 문화사랑방		
내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시간, 횟수, 장소, 접수방법 등), 운영 방식(교육실 환경) 평가 및 개선방안 *구체적인 내용은 토론문 참조		

이름	직위	담당 업무
양원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교육 프로그램 총괄
전지영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교육 프로그램 책임
유나리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원/에듀케이터	초등 단체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박혜린		주말가족 프로그램 기획 운영
김해송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권혜진		영유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김정민		초등 단체 프로그램 강의
김지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 강사	주말가족 프로그램 강의
최승은		영유아 프로그램 강의
황유선		주말가족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경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보조강사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곽연화		초등 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박다솔		주말가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박지영		주말가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울건	교육 간담회 속기사	교육 간담회 속기록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 간담회 토론문

유나리 (에듀케이터, 초등 단체 프로그램 담당)

교육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각각 담당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명, 교육 시간 및 장소, 주요 교육 내용 등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권혜진 (에듀케이터, 영유아 프로그램 담당)

영유아 프로그램은 만 24개월에서 42개월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1층에 있는 아기둥지에서 진행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총 다섯 종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1종 당 두 달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마다 두 시부터 세 시까지 운영되고,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합니다. 영유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아기둥지 안에 있는 예술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 작품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혜린 (에듀케이터, 주말가족 프로그램 담당)

주말가족 프로그램은 6세 이상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의 콘텐츠를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한 시 반, 세 시 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장에서의 학습 경험을 되새겨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나리 (에듀케이터, 초등 단체 프로그램 담당)

초등 단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의 현장학습 기간을 고려해서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초등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버스를 임차하여 아이들이 학교와 박물관을 오고 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미디어 전시 컬러풀 정글과 연계하여 경기도의 멸종위기 동식물 11종의 멸종 원인과 보호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송 (에듀케이터,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담당)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은 예술가, 과학자, 건축가 등 전문 분야의 전문가와 에듀케이터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람 소리를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옛날부터 우리 곁에 늘 존재해왔던 바람의 여러 가지 소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서 두 번 진행되었는데요. 상반기는 초등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운드 음향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고요. 하반기에는 초등 저학년으로 연령을 낮춰서 소리가 없는 바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재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주제로 풍경을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유나리 (에듀케이터, 초등 단체 프로그램 담당)

앞서 소개해드린 프로그램 외에도 어린이날, 방학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시간, 횟수, 장소, 접수 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과 그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담당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발언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논의 순서는 영유아 프로그램, 주말가족 프로그램, 초등 단체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지영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영유아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교육 대상 24~36개월로 할 것인지, 24~42개월로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데요, 주 강사이신 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황유선 (영유아 프로그램 주 강사)

24개월에서 42개월 영유아의 발달 차이는 굉장히 큼니다. 월령이 30개월 이전인 아이들은 대다수가 기저귀를 못 떼고, 단어를 배우고 있는 상태라 복잡한 단어는 이해를 하지 못 합니다. 또한, 엄마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좌우 균형과 같은 신체 발달이 미흡해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몇 달밖에 안되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월령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접수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교육 신청자를 사전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신청자에게 교육 전달 문자를 보내고 교육 당일에는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육 참가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신청을 할 때, '교육 당일 연락이 안 되면 자동 취소됩니다.'와 같은 공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혜진 (에듀케이터, 영유아 프로그램 담당)

덧붙이자면 교육 대상의 월령을 올리면 프로그램에 스토리를 담을 수 있어요. 월령을 조정하게 되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월령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영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그러면 월령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 좋을까요?

권혜진 (에듀케이터, 영유아 프로그램 담당)

30개월이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유선 (영유아 프로그램 주 강사)

저는 최소한 28개월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혜진 (에듀케이터, 영유아 프로그램 담당)

저는 교육실 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아기둥지는 일반 관람객도 이용할 수 있는 전시실이에요. 그런데 영유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만큼은 일반 관람객이 아기둥지를 이용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아기둥지를 이용하시던 분들에게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곤란할 때가 많아요.

접수 방법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현금으로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다들 카드를 들고 다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전지영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내년부터는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현금과 카드 결제를 병행할 때 취소, 환불 등과 같은 행정 처리의 부담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실 환경 문제는 저 역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 공간을 만들어서 일반 관람객들이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전시실에서 나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대안 공간으로 기획전시실의 일부를 분리해서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원 (주말가족 프로그램 주 강사)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바닥에 매트를 까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특정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다른 미술관에서도 새로운 공간을 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매트를 깔았거든요.

전지영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초등학교에 간다면?’ 전시실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전시실은 학령기 준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영유아 프로그램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원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장)

박물관 교육의 정체성이나 지향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박물관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래를 교육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에서 했던 교육을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는 할 수 없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을 실험하고 먼저 접하게 하는 곳이 박물관인 것이죠.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의 환경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실험을 하기가 녹록치 않아요. 그렇지만 틈새 전략으로 공진화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전지영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어린이박물관 개관 초기에 근무하셨던 김정민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박물관의 많은 공간을 사용해보셨는데요, 교육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민 (초등 단체 프로그램 주 강사)

영유아 프로그램은 가변성을 띠는 공간보다는 고정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영유아들은 사방이 개방된 공간에서는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박물관 외부에 있는 배영환 작가님이 작품인 ‘내일’에서 2년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의외로 아담해서 소수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기에 매우 좋았어요. ‘내일’도 대안 공간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리 (에듀케이터, 초등 단체 프로그램 담당)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주말가족 프로그램으로 논의의 대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가족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교육실 환경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주말가족 프로그램 주 강사)

주말가족 프로그램은 교육실 내에 재료 준비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갑작스럽게 필요한 재료를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6세 미만의 아이들도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이때 재료 준비실에서 도화지와 색연필 등을 주어서 그 아이들도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가족 프로그램이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과 같은 다른 행사와 시간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행사와 겹치면 주말가족 프로그램을 사전 신청하신 분들이 당일 취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박물관에서 전체적인 스케줄을 고려하여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의 시간을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최승은 (주말가족 프로그램 주 강사)

덧붙여 말씀드리면 박물관 행사와 같은 시간대에 운영되다 보니 전문성도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공연장과 교육실의 입구가 동일하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공연장과 교육 접수 데스크의 분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해송 (에듀케이터,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담당)

교육실 입구를 바꾸는 건 어떨까 싶어요. 좁은 공간에서 두 가지 접수를 같이 받으려니 관람객도 혼란스러워 하고, 입장 동선도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는 교육 담당자 한 명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지요. 시간대를 달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관람객이 박물관에 가장

많이 머무는 시간대에 행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시간을 양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원 (주말가족 프로그램 주 강사)

교육 프로그램 시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릴게요. 주말가족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13시 30분, 15시 30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점심시간과도 겹쳐서 관람객의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강경원 (주말가족 프로그램 보조강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의 성격별로 어느 달은 60분, 어느 달은 40분을 운영하는 것이죠. 매월 모든 프로그램을 50분으로 고정하는 것보다 운영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사전 확인과 관련하여 사전 신청자는 몇 시까지 어디로 와서 최종 신청을 완료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최종 참여 신청을 확인할 때면 박물관 전화번호를 모르다보니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내에 있으신 사전 신청자들도 있을 테니 안내 방송을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전지영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관내 방송을 할 때 접수 데스크에서 최종 참여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교육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문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최승은 (주말가족 프로그램 주 강사)

오늘 전시실을 둘러봤는데 전시실 내에는 교육 홍보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일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원 (주말가족 프로그램 보조강사)

이와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재 참여율이 높은 만큼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나리 (에듀케이터, 초등 단체 프로그램 담당)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왔는데요, 먼저 온라인 홍보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가족, 영유아, 초등 단체 프로그램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경기문화재단과 박물관 SNS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관내에도 영상을 틀어서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는 홍보를 한다면 박물관을 처음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잘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SNS 기사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 단체 프로그램으로 논의의 대상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단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교육실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민 (초등단체 프로그램 주 강사)

교육 프로그램의 접수는 담당자인 유나리 선생님이 전담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활한 운영 관리 덕분에 프로그램 교수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어서 교구 제작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싶은 사항들이 생기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서 운영이나 프로그램 내용 기획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나리 (에듀케이터, 초등 단체 프로그램 담당)

초등 단체 프로그램은 일반 관람객 대상이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과 일대일로 연락해서 접수를 받는 시스템이라서 민원의 소지가 다른 프로그램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었다면 모집 문제였어요. 상반기에는 초등학교에 버스 임차를 지원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보니 30~40명의 단체가 학교 밖으로 나오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각 초등학교마다 처한 예산 부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버스 임차를 지원하였는데 그때는 교육 신청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 점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원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장)

초등 단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평일 오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오후 시간은 매우 한산하죠. 이 시간대에 초등학생들이 와서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주말은 3,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오고 있고 다중을 대상으로 한 주말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다 회차 프로그램이 주말에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역할을 예술가들이 할 수 있죠. 예술가들과 함께 가장 기초적인 작업부터 시작하여 무언가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죠. 50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고력,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과 진행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방식보다는 이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니터링도 꼭 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종수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죠.

유나리 (에듀케이터, 초등 단체 프로그램 담당)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소감을 한 마디씩하

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린 (에듀케이터, 주말가족 프로그램 담당)

저는 2월에 어린이박물관에 발령을 받고나서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또 배운 것 같습니다.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자리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영 (주말가족 프로그램 보조강사)

저는 이런 진지한 회의가 처음이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승은 (주말가족 프로그램 주 강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주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프로그램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결과물을 담당자와 함께 만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강경원 (주말가족 프로그램 보조강사)

장기간 교육 프로그램의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고 담당자 선생님의 친절함 역시 큰 감동이었습니다.

김정민 (초등 단체 프로그램 주 강사)

꼭 필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오늘 이 자리가 매우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서 학예팀장님이나 관장님의 비전을 많이 전달

해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직접 듣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권혜진 (에듀케이터, 영유아 프로그램 담당)

저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아서 매우 감사해요.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나만의 고민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해송 (에듀케이터,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담당)

저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이 담당자와 감사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이런 자리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리 (에듀케이터, 초등 단체 프로그램 담당)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왔던 것들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새로 알 수 있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영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저는 치열한 논쟁을 좋아해요. 우리는 다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대화라고 생각해요. 서로 간의 거리를 스스로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 거리를 줄이고자 노력하겠지만 선생님들도 저를 동역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원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장)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하고 눈 마주치면서 일하는 기획자, 황유선, 최승은, 강경원, 박지영, 김정민, 박다솔, 김지원 선생님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육의 질은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최고의 콘텐츠이고, 교육 사상이나 교육 철학을 박제하신 분이예요.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참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V. 에필로그

신나는! 즐거운! 설레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유나리

‘신나는! 즐거운! 설레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학예연구사로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 부모님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감정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박물관 미술관이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버금가는 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수요도 커졌고, 관람객들은 여러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신나고 즐겁고 설레는 감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부모님들을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그저 막연하게 와주기를 바라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성장과 부모님의 삶에 건강하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엇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고민과 설렘이기도 합니다. 담당자의 고민과 설렘이 담긴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담당자의 바람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부모님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2018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 신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획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설렘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획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초등 단체 프로그램인 ‘함께 지켜요! 경기도의 동식물 친구들’입니다. 초등학교 2~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멸종위기 동식물의 멸종원인과 보호방법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후기를 들으면서 ‘어린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솔직히 전에는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이 수업을 통해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동물과 식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수업에 참여하니까 만들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재밌었어요.”

“청호반새가 멸종위기 동물인 것을 오늘 알아서 좋았어요.”

제가 바라는 설렘에는 단순히 박물관에 또 오고 싶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교육적 메시지가 주는 선한 영향력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지구가 건강해질거야.’라고 말이지요. 이것은 본인의 행동이 세상에 미칠 선한 기대감입니다.

향기와 악취는 종이 1장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그 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지요. 2019년에도 선한 향기를 전하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되기를, 신나고! 즐거운! 설레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그 향기 속에서 기조제 역할을 하는 향료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을 돌이켜 보면서

학예연구사 박혜린

올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제가 했던 일을 돌이켜 보면, 단편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한 개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1년 동안 이런 작은 프로그램들을 여럿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야기들이 묶인 하나의 단편집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전통 놀이 ‘종골락’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의 경우, 낯선 나라인 인도네시아에 흥미를 가지면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전통 놀이를 즐기던 곳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행복수업을 준비할 때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더불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한 번에 만나보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작은 수업들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에 제 생각이 들어가므로 단 한 번의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생각이나 틀린 사실이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더 재미있게, 더 유익하게 전달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더 좋은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저 역시 어린이들 못지않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가한 가족들이나 어린이들의 기억에 꼭 제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이 남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프로그램 그 자체보다는 그때 느꼈던 기분이나 사소한 일(만들기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보조강사 선생님이 칭찬을 하셨다든지)이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용 전달 외에도 참가자들과의 상호작용까지 꼼꼼히 신경써주셨던 주 강사 선생님들과, 보조강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함께 근무한 다른 선생님들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업무 과정 중의 주의사항 등을 배웠고, 그 외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보다는 덜 새롭지만, 새로 배우는 어른이로 지낸 한 해였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한 해를 돌아보게 될 텐데 그때는 올해보다 더 괜찮았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또 한 살 자랐습니다

학예연구원 김해송

연두빛 잎사귀 돌아나던 봄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린 공기가 머리카락 사이를 서늘하게 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계절들을 지나며 만난 어린이들과 함께 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저도 조금씩 자라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에듀케이터로서 더욱 새롭고, 즐거우며 어린이와 가족이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장과 마주했던 시간들이 스쳐갑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 소리’라는 추상적이고 자연적인 소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도 전문가 못지않게 바람 소리에 대해 사유하고 질문을 던지던 친구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전 지구적 이슈인 ‘물’에 대해 생각하다가 스스로 물을 다루는 신이 되는 친구들의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지요. 이렇게 어린이들은 제가 고민하던 범주를 즐겁게 깨뜨리고 그 이상을 상상하며 재미있는 세계들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생각 체력을 모두 소모하여 힘이 들었던 순간에도 매번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세계를 마음껏 넓혀나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늘 어린이를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을 지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힘 또한 어린이에게서 나오는 것이지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단순히 무엇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꽤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공간입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 그리고 다채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매년 각기 다른, 그야말로形形色색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주제들과 익숙하지 않은 방법들이 시도되어지고 그 가능성을 실험해보기도 하지요.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창발적 사고와 만나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결과물이 탄생하는 것도 어쩌면 어린이 박물관이기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른에게는 무거울 수 있는 문제들이 어린이의 유연한 사고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포용력으로 유쾌하게 허물어져버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2018년에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어 뜻깊었고, 행복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고운 진심과 가족들의 사랑스러움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참신한 주제와 철학을 담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려 밤을 지새웠던 날들도 있었지만 곁에 있는 열정적인 선생님들, 어린이와 가족들의 따뜻한 힘으로 다시금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어린이 박물관은, 그리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에듀케이터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계 없이 상상해 나갈 수 있는 멋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선생님들과 어린이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축축한 자양분을 나누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맑은 웃음이 커다란 행복으로 번짐을 배우다

학예연구원 권혜진

올해는 유독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공기가 많이 탁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의 삶에서 자연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또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하신 해였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미래의 아이들에게 맑고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번 영유아 대상 에코 아틀리에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에코 아틀리에 프로그램에서 만난 우리 아이들의 자연을 향한 맑고 깨끗한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대상 에코 아틀리에를 준비하면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활동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박물관이 얌전히 전시품만 보는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활기차고 신나는 놀이터라고 생각해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구와 환경 구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 혼자서는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지만, 교육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주강사 황유선 선생님께서 뛰어난 아이디어와 단단한 추진력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색다른 교육 과정을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으며, 보조강사 박연화 선생님의 빼어난 손재주로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교구를 만들어주셔서 에코 아틀리에 프로그램이 더욱 반짝반짝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박물관에서 구성한 색다른 프로그램을 위해 참여한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아낌없이 제안해주셔서 여러 시선으로 아이들에게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 그 이상으로 활력을 가지고, 교구와 더불어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다음 프로그램은 더욱 더 알찬 구성과 더 멋진 교구, 그리고 아이들의 호기심과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과 누구보다 정성을 들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코 아틀리에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참여하여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단순히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어린이 위주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경기도의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당연하게 용인되던 우리들을 돌이켜 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무수히 버려지던 재활용품들이 얼마나 멋진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에코 아틀리에에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멋진 예술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길러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틀에 맞춰 아이들이 활동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잊고 지내던 아이들만의 순수한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듬해부터 에코 아틀리에에서 자연 자체를 교구로 활용하여 관찰하며,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신과 대자연을 하나로 생각하고 느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제게 행복이 되어 번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미소를 저의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며 보다 즐겁고 활기찬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8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기획	유나라, 박혜린, 김해송, 권혜진, 박연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에듀케이터)
교육강사	유현식 (초빙강사) 박연화, 김연실, 김우준, 김정민, 김지원, 박보람, 오혜진, 우민희, 유해랑, 이예진, 이옥진, 장문경, 최승은, 황유선 (주강사) 강경원, 구상림, 권다희, 김가은, 김다솜, 김동은, 김동희, 김보민, 김소연, 김원재, 김윤아, 김지수, 박다솔, 박지영, 용연중, 유정민, 윤다영, 이수빈, 이승곤, 이지은, 임현정, 정진영, 최윤선, 한서희 (보조강사)
총괄 책임	양원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전지영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교육디자인 운영지원	조민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 김지나, 최미선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 전문국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장) 강경희, 김수현, 송유진, 유지은, 이영섭, 이학성, 차영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
디자인	342워크
발행일 발행처	2018.12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031.270.8600 031.283.5364 http://gcm.ggcf.kr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본 책은 2018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결과자료집입니다.

본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